

4312
〈南北政治分科委員會〉

第6次會議會議錄

1992. 7.

統 一 院

〈南北政治分科委員會〉

第6次會議會議錄



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5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92. 7. 2(木) 10:00~12:51(公開)

나. 場 所 : 板門店 北側地域 「통일각」

다. 雙方 代表團

區 分	우 리 側	北 側
委員長	李東馥(남북고위급회담 대표)	백남준(남북고위급회담 대표)
委 員	金達述(통일원 자문위원) 崔圭鶴(총리실 심의관) 姜根鐸(외무부 심의관) 辛光玉(법무부 심의관) 申 丁(합참 민심실장)	김완수(외교부 순회대사) 조상호(「조국전선」중앙위 서기국 부국장)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정영춘(조평통 서기국 참사) 심태진(정무원 상급 심의원) 조성대(조선중앙방송위 처장)
隨行員	윤정원, 이봉조, 문덕형 김명득, 한수웅	전재달, 류용석, 윤기욱 안명철, 김룡현, 최창수

※ 閔炳錫 委員은 해외출장으로 不參

會議錄

2. 會議錄

남(이동복) : 오래간만 입니다.

북(백남준) : 반갑습니다.

남(이동복) : 어때 잘 지내셨어요? 요전에 그 양해해 주셔서.

북(백남준) : 예, 예.

우리 오늘 회의는 7.4공동성명 발표 20돐을 이틀 앞두고 진행되는 회의가 되다 보니 의미가 깊습니다. 이동복위원장도 기억하겠지만은 그때 평양과 서울에서 7.4공동성명이 같은 시각에 발표될 때 그때 아주 걱정스런 순간을 잊을 수 없죠.

그쪽에서 우리가 듣건대는 이민을 간다고 이렇게 짐보따리 싸냈던 사람들이 7.4공동성명이 발표되니까 아예 금방 아마 통일이 되겠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다시 눌러 앉았다는, 눌러 앉은 사람들이 적지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이동복) :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북(백남준) : 아마 그때는 삼천리 강토가 정말 환희와 걱정으로 들끓었고 온 겨레가 기쁨과 통일에 대한 기대로 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남(이동복) : 그래요.

북(백남준) : 그랬어요. 그쪽에서는 이번 20돐을 어떻게 지냅니까?

남(이동복) :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한 날을 그날대로 여러가지 기억하는 일들을 하겠죠.

북(백남준) : 우리는 이번 7.4공동성명 발표 20돛을 아주 크게 씁니다. 기념보고대회를 가지고 기념강연회도 하고 그리고 과학토론회도 가지고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해요.

그런데 이날을 맞으면서 나는 한가지 생각되는게 있단 말이에요. 북남합의서가 채택·발효돼서, 발효된 후 지금까지 사태를 보면.

남(이동복) : 기본합의서.

북(백남준) : 예, 북남합의서. 북남합의서가 채택·발효된 이후의 사태를 이렇게 쪽 보면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때와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남(이동복) :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백남준) : 이제는 북남합의서가 발효돼서 벌써 5개월이 돼온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거의 첫 출발선에 머물러 있고 전망도 그다지 밝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래 우리 쌍방이.....

남(이동복) :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하는 말씀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런 말씀 조금 잘못하시면 금방 그게 엉뚱한 다른 뜻이 되고 이상한.....

북(백남준) : 다 생각이 있고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그래 우리 쌍방이 7.4 공동성명 휴지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겨레에게 이런 좌절감, 실망감을 줬던 지난날의 교훈을 우리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쌍방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채택·발효시킨 북남합의서를 이걸 이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이런 공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북남합의서 이행하는데서 쌍방대표들의 책임과 임무가 막중

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거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정말 진실로 존중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북남합의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8차회담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요. 얼마남지 않았는데 우리 쌍방이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아주 참신하게 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이동복) : 이제 백위원장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테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눈팔지 말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책임을 다합시다. 우리 책임을 다하면 지금 백위원장이 걱정하는 일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일도 차질없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회의부터는 우리 욕심같아서 정말 밤잠을 자지 말고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모이는 빈도를 보면, 이번에 거의 한달만에 모이는 거죠. 6월 9일날 하고 지금 7월 2일날이니깐 28일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일주일마다 만나서라도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일은 완수해낸다하는 각오를 다짐하는 회의를 우리가 오늘 갖는게 어떻겠느냐.

북(백남준) :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분과위원회가 시작돼서 120일이란 말입니다, 오늘까지가. 그런데 지금까지 도달한 선상하고 앞으로 8차회담이랑게 70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120일이면 70일이란게 극히 짧은데 과제는 아주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 하겠습니까?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먼저 기자선생님들 자리를 정돈해주시지요. 오늘은 관례대로 제가 사회를 하지요.

남(이동복) : 하십시오.

북(백남준) : 회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이동복) : 뭐, 사회를 우리 백위원장이 하시니까 백위원장이 원하시는데로 난 따라 갈게요.

북(백남준) : 예, 그러면 공개로 합시다.

남(이동복) : 공개로? 좋습니다.

북(백남준) :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요.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이동복 위원장, 이것 받으시죠.(북측 기본발언 문건을 우리측에 전달)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북측 기본발언〉

남측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 8 차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기전에 북남합의서 《제 1 장 북남화해》부문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며 북남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킬데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지금 은 거래는 조국통일의 리정표로 되는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하루빨리 리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분과위원회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여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습니다.

이것은 북과 남, 해외의 그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90년대통일을 학수고대하고있는 우리 거래로서는 너무나도 웅당한 기대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그런것만큼 쌍방위원들은 거래와 시대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분과위원회들의 사업을 웅당한 속도로 추진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북남합의서가 채택발효된 때로부터 5개월이 되여오고 각 분과위원회들이 사업에 착수한지도 여러달이 지났지만 부속합의서작성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분과위원회만 놓고 보아도 지난 3월 9일 첫회의가 있는 이후 5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와 1차례의 위원접촉을 가지였지만 우리는 리행기구로서 북남련락사무소를 설치하였을뿐 분과위원회앞에 부과된 기본사명인 부속합의서와 화해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작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말싸움만 계속 하고있습니다.

좋게 발전하는 북남관계를 적극 추동하여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는데서 응당 선구자적역할을 해야 할 우리 정치분과위원회가 석달동안이나 제자리걸음을 하여 거래에게 실망을 안겨주고있는것은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못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금 쌍방위원들은 매우 책임적인 시기에 서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정치분과위원회 회의가 무엇때문에 응당한 수준에서 진척되지 못하고있으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공정하게 돌이켜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는것이 매우 필요한 일로 될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이제부터 정치분과위원회사업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귀측도 알고있는것처럼 정치분과위원회에 립하는 우리의 립장은 북남합의서의 요구와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정신에 맞게 이미 제 7 차 북남고위급회담전에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북남련락사무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토의를 끝내고 그것들을 제 7 차 고위급회담에서 발효시키자는 것이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측은 벌써 분과위원회 제 1 차 회의때에 3개의 합의서안들을 일괄로 제기하고 본격적으로 토의할것을 귀측에 촉구하였던것입니다.

그리고 귀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분과위원회 회의가 공전을 거듭할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의견차이를 좁히고 합의점을 모색하려는 일념에서 제

4 차 회의때에 귀측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인 수정안을 내놓은데 이어 제 5 차회의에서 또다시 새로운 수정안을 내놓는 적극성을 보이였습니다.

제 5 차회의에서 내놓은 총 8장 34개조로 된 우리측부속합의서안은 조국 통일 3대원칙과 북남합의서정신에 부합되게 작성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안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측 부속합의서는 이미 강조하였지만 무엇보다도 북과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수 있는 구체적인 리행대책을 충분히 담고있는 현실성있는 안인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현분렬상태를 하루빨리 가시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철두철미 평화지향적이며 통일 지향적인 안인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어느 일방의 주의주장과 리해관계만이 아니라 귀측의 의사와 요구도 충분히 고려한 공명정대한 안입니다.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의 현실성과 통일지향성, 공명정대성에 대하여서는 귀측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보기때문에 더이상 길게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는 북남합의서가 쌍방이 각기 은겨레앞에 그 리행을 엄숙히 확약한 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것을 빨리 리행하려는 립장으로부터 분과위원회사업에 성실히 립해왔다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 분과위원회사업에 립하는 귀측의 립장이 우리와는 전혀 같지 않다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언급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귀측이 북남합의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이로부터 정치분과위원회 회의를 각방으로 방해하여왔다고 보고있습니다.

귀측은 분과위원회가 북남합의서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의 첫 두차례의 회의들에 부속합의서안도 없이 빈손으로 나와 기본문제토의를 회피하였습니다.

귀측은 내외여론에 못이겨 제 3 차회의때에 명색상 그무슨 부속합의서안이라는것을 내놓았지만 필요없이 무려 5개의 부속합의서안을 내놓으므로 써 누가 보아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립장에서 출발한것이 아니었다는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귀측은 의도적으로 문제토의를 지체시켜오다가 제 7 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제 8 차 북남고위급회담전에 부속합의서를 완성하기로 합의한 직후에 열린 제 4 차회의때에 와서야 비로서 하나의 부속합의서안을 내놓았던것입니다.

귀측이 3차회의때까지 하나의 종합부속합의서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데 비하면 이것은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이 내놓은 부속합의서안은 수많은 걸림돌들로 차있는 상당히 문제성있는 안이었습니다.

우선 귀측합의서안의 제 1 장 《총칙》은 우리가 여러번 지적한바와 같이 부속합의서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따로 설정할 어떠한 가치도 없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귀측은 애당초 필요없는 <총칙>이라는 장을 설정하였을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학술논문에서나 흔히 쓰는 그무슨 <목적>이니, <특수관계>니 하는 뜻풀이를 장황하게 렴겨해놓았으며 더우기 거기에 북남관계를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로 고착시키려는 불순한 내용까지 아무 꺼리낌없이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관계라는 데 대해서는 북남합의서의 서문에도 명백히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이른바 <특수관계>라는것을 내세워 북남관계를 국가들사이의 관계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더우기 이러한 관계가 부속합의서 모든 조항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대책의 기초로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분렬지향적이며 반통일적인 시도라고 밖에 달리는 인정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통일적이며 분렬지향적인 귀측부속합의서 제 1 장 <총칙>은 백해무익한것으로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귀측의 합의서안은 전반적으로 도저히 합의를 볼수 없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귀측은 북남합의서에 별개조항으로 되어있는 제 1 조와 제 2 조를 인위적으로 한데 묶어 1개장을 구성해놓았는가 하면 상대방의 법질서를 <인정, 존중>한다는 구실밑에 북남화해를 부정하고 대화일방을 <적>으로 규정한 <법>들까지 철폐할수 없다는 심히 온당치 못한 립장을 취하였습니다.

귀당국은 최근에도 북남합의서의 정신에 어긋나게 《국가보안법은 남북합의서채택과 별개의 문제》이며 《남북합의서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일종의 공동성명이나 신사협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북남합의서에 대한 란폭한 외곡이며 거기에 서명한 일방인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모독행위입니다.

귀측은 북남합의서의 정신과 북남사이의 화해와 통일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모든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무조건 제거하는데 더이상 주저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귀측합의서안 제 2 장에서 또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제 3 국과 맺은 조약이나 협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것입니다.

북과 남이 지난시기 제 3 국과 맺은 조약이나 협정들 가운데는 화해와 통일에 저촉되는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 3 국과 맺은 조약이나 협정들에 대한 태도는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려는가 안하려는가 하는 근본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의 단합과 리익에 배치되게 제 3 국과 맺은 모든 조약들과 협정들은 그것이 쌍무적이든 다무적이든, 군사조약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철저히 개정 또는 폐기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귀측은 합의서안 제 3 장 비방증상증지에서 비방증상행위의 주체를 공공단체로만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민간단체들의 비방증상행위를 방임해두려는 불성실한 립장을 취하였습니다.

귀측은 민간단체들의 비방증상증지행위에 대한 통제가 마치도 《헌법》에

규제된 《자유》를 구속하는것으로 되는듯이 말하고있는데 이것은 합의사항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비방증상증지는 무엇보다 먼저 실현되어야 할 선차적인 과제이며 일단 시작하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영, 민영을 막론하고 그리고 어떤 언론기관이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방을 비방증상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협의강구하여야 할것입니다.

제 5 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에서 귀측은 부당하게도 《남북당사자해결원칙》을 고집해나서고 있습니다.

귀측의 주장은 북남합의서에 대한 외곡일뿐아니라 정전협정과 유엔결의에 대한 란폭한 유린입니다.

조선정전협정 제 4 조 제61항과 제62항에는 협정의 수정, 보충은 물론 다른 협정으로의 교체와 관련한 당사자는 정전협정체약쌍방이라는것을 명백히 규제하고있습니다.

귀측은 정전협정체약당사자가 아닐뿐아니라 그 리행의 책임있는 실제적 당사자로도 될수 없습니다.

귀측은 정전협정 그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1958년에는 《국회》에서 그것을 정식 무효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귀측이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책임있는 실제적당사자로 될수 없다는것을 더 론의할 여지없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정전협정체약당사자도 아닌 귀측이 《당사자해결원칙》을 내세워 그 무슨 《정전협정체제유지》니, 《군사정전위원회기능정상화》니 하는것은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로서 응당 철회되어야 할것입니다.

귀측의 합의서안에는 이밖에도 부당한 조항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귀측합의서는 문제토의에 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합의서정신에 배치되고 객관적현실에도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을 인위적으로 수 많이 포함시킨 문제성있는 안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디에 기인하고있는가 하는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부속합의서내용을 어떻게 꾸미겠는가 하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실수가 아니라 바로 귀측이 북남합의서를 외세의존적이며 분렬지향적인 자기의 정략적목적에 리용하려는 그릇된 자세와 그를 성실히 리행하지 않으려는 립장으로부터 초래된 엄중한 과오라고 봅니다.

우리의 이러한 판단은 결코 무근거한것이 아닙니다.

귀측의 그릇된 립장은 북남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일어난 제반 사태가 그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습니다.

넬리 알려진바와 같이 북남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얼마안가서 귀측은 난데없이 그 누구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남북관계의 그 어떠한 진전도 기대할수 없다》고 공식 선언해나셨습니다.

당시 귀측이 들고나온 이른바 《핵문제》란 우리에게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념두에 둔것이였습니다.

이것자체가 벌써 귀측이 그때부터 속에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귀측도 인정하겠지만 우리 쌍방은 북남합의서를 발효시킬 때에 그것을 그 무슨 《핵문제》와 연관시킨 일이 없었으며 우리 쌍방은 다같이 그것을 무조건 성실히 리행할데 대해서만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귀측이 우리의 《핵사찰》문제를 걸고 그것이 안되면 합의서를 리행할수 없다고 하는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태는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한 약속대로 지난 1월 30일에 핵담보협정에 서명한 이후 4월에 그것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 승인하였을뿐아니라 핵물질초기재고량보고서와 핵설비명세서를 규정보다 훨씬 앞당겨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으며 얼마전에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사찰이 순조롭게 그리고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모든 협조를 다하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비정기사찰을 통하여 우리의 핵개발이 오직 평화적목적을 위하여 진행되고있다는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귀측은 원래 당치도 않게 들고나왔던 그무슨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벌려오던 대결소동을 즉시 중지했어야 하며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는 길로 돌아서야 할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이 아무러한 문제점도 없다는것이 확인된 다음에 귀측은 그 무슨 《남북상호핵사찰》문제라는 《제2핵소동》을 새롭게 일으키며 그것이 실시되기전에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

대하기 어렵다》느니 뭐니 하는 판에 박은 랑설을 늘어놓는가 하면 심지어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재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까지 하면서 새로운 대결소동을 더욱 요란스럽게 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우기 귀측은 며칠전에 《당정회의》를 열어놓고 《남북핵동시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모든 남북교류를 《류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어 지난 6월 29일에도 귀당국은 《북의 핵개발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느니, 《북의 핵개발문제는 민족의 생존과 안전은 물론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되뇌이였습니다.

이 모든것은 귀측이 북남합의서리행을 진전시키지 않기위한 구실을 마련해보려는데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더우기 우리가 간과할수 없는것은 본 분과회의에 나와 우리와 마주앉은 리동북위원장자신이 귀측당국을 공식 대변하면서 앞장서서 북남합의서의 리행에 제동을 걸고있는 것입니다.

리위원장은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변인자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할수 없다》고 하였으며 최근에 한 《기자회견》에서는 그 누구의 《핵문제》에 대해 거론하면서 그것이 해결됨이 없이는 오는 9월까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불투명》하다고 단정하여 말하였습니다.

바로 정치분과위원회 남측위원장인 리위원장자신이 이런생각을 가지고 회의에 립하다보니 우리 분과위원회사업이 순조롭게 진전될리 만무한것입니다.

《핵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미 우리가 여러 기회에 립장표명을 한바와 같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로 우리의 그 무슨 《핵무기개발》에 대한 의심의 근거가 없어지게 된 오늘의 실정에서 이제 남은 중요한 문제는 귀측이 남측지역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전면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서 핵이며 북남사찰의 기본으로 되는것입니다.

이 문제가 옳게 풀려야 북남핵사찰도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귀측이 무엇때문에 《핵문제》를 가지고 그토록 생억지를 써가며 북남합의서리행을 차단하고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려 하고있는가 하는것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불순한 정치적목적으로부터 이러한 책동에 매달리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북남관계를 악화시키는 방법으로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장기화하고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를 계속 존속시키며 조일, 조미 사이의 관계개선에 제동을 걸며 뒤숭숭한 남조선내부정세를 수습하고 《선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보려는 목적으로부터 이러한 책략에 매여달리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귀측이 벌리는 《핵개발》소동은 이러한 정치적의도와도 관련되겠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미국의 직접적인 압력과 지시에 의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정초부터 미국의 공식계층인물들은 편질나게 서울을 드나들면서 북

의 《핵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합의서의 채택은 지나치게 성급한것》이라고 불평하며 귀측에 그 리행을 《류보》할데 대해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순조롭게 진행된 다음에는 국제핵사찰이 《미흡하다》느니, 《아직 핵의혹이 사라지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남북핵사찰》에 대해서 떠들어대었습니다.

이것은 귀측이 벌리는 무분별한 《핵위협》소동이 미국의 《핵문제우선타결 원칙》으로부터 출발한것이며 워싱턴의 직접적인 지령에 의한것이라는것을 뚜렷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량심들과 공정한 사회여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핵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반대하는 소동을 계속 벌리면서 북남합의서리행을 가로막고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귀측이 이런 대화자세를 버리지 않고 계속 답습한다면 우리가 과연 귀측과 마주앉아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공동위원회를 내오는것과 같은 민족의 중대사를 원만히 해결해나갈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남측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치분과위원회 제6차회의가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20돛이 되는 때에 열리는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7.4공동성명의 발표는 분렬과 대결의 고통속에 모

대기던 온 겨레의 가슴속에 통일의 밝은 서광을 안겨주고 삼천리조국강토를 통일의 거세찬 열풍으로 휘몰아치게 한 특기할 사변이었습니다.

7.4공동성명의 핵으로 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은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준 통일의 이정표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집대성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입니다.

지금 온 겨레는 대결과 전쟁의 위험만이 감돌던 이 땅우에 평화와 평화통일의 열풍을 몰아온 20년전 그날의 그감격, 그 기쁨을 되새기며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한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순조롭게 리행되기를 한결같이 기대해마지 않고있습니다.

북과 남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저바려서는 절대로 안되며 그 숭고한 리념과 원칙을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그릇되게 해석하여도 안되며 거기에 다같이 충실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쌍방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 북남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모든 힘을 경주하여야 할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분과위원회는 제 7 차 북남고위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제 8 차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기전까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할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있습니다.

부속합의서와 공동위원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9월 15일까지는 이제 7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분과위원회가 구성운영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벌써 120일이 지났으나 아직도 부속합의서토의에서 평행선을 긋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시간을 극력 아껴야 하며 회담을 절대로 공전시키는 일을 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우리가 작성채택하여야 할 부속합의서가 민족적화해를 이룩할수 있는 훌륭한 합의서로 되게 하자면 그것이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철저히 구현한것으로 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귀측이 들고나온 부속합의서는 분렬지향적이며 외세의존적인것으로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합의서의 기본정신에 전적으로 배치되는것입니다.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어긋나는 외세의존적이며 분렬지향적이며 반통일적인 요소들은 마땅히 부속합의서에서 제거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제 쌍방이 합의한대로 제 8 차 북남고위급회담전까지 부속합의서토의를 끝내는가 못끝내는가, 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측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8.15해방 47돛을 계기로 북남합의서리행의 첫 선물로 될 로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의 실현여부도 귀측의 태도여하에 중요하게 달려있는것입니다.

귀측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로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을 실현하며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간데 관심이 있다면 부당한

구실을 내걸고 합의서리행을 《류보》시키려는 립장에서 벗어나야 하며 핵문제를 가지고 벌리는 대결소동을 무조건 중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우리가 열백번 마주앉아 회의를 해도 거기에서 아무런 결실도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오늘 회의에서 우선 귀측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들에 대한 명백한 태도표시가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첫째로, 귀측은 민족앞에 엄숙히 서약한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둘째로, 《상호핵사찰》을 전제조건으로 합의서리행을 《류보》하려는 그릇된 립장을 계속 취하겠는가, 아니면 그 부당한 전제조건을 철회하겠는가,

셋째로, 귀측은 사대주의적이며 외세의존적인 립장에서 벗어나 자주적립장에서 우리와 마주앉아 합의사항들을 협의 해결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리위원장의 명백한 대답을 하여야 할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오늘과 같은 복잡한 정세속에서 이러한 절박한 문제들이 명백히 풀리지 않는다면 북남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시켜나갈수 없으며 북남대화도 문제를 해결하는 신의있는 대화로 진척시켜나갈수 없을것입니다.

우리가 제기한 질문은 우리측 위원 몇사람의 의문을 풀어주는 그런 단순한 질문인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단합하려는 온 겨레의 념원을 실현하고 그들이 품고있는 의혹을 풀어주는 신중하고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나는 귀측이 우리가 제기한 질문에 심사숙고하고 기본문제토의에 앞서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이동복)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백위원장의 기본발언을 경청을 했습니다. 기본발언을 통해서 백위원장께서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현안의 문제인 부속합의서 문제보다는 부속합의서 문제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본발언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나 하는데 대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 입각해서 준비한 기본발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백위원장의 발언을 들어 보니까 이러한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문제를 토의하기에 앞서서 말씀하신데 대한 우리측의 해명을 꼭 요구하시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측 기조발언〉

백남준 위원장!

그리고 북측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평화의 집에서 가진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정치분과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될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이전에 남북화해분야에 관한 구체적 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 문제와 그 이행기구인 화해공동위원회 문제를 협의 해결해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된 시한은 앞으로 불과 2개월 반정도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 맡겨진 중대한 임무와 이같은 시한의 촉박성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질토의에 들어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분과위원들이 맡겨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회의를 타협과 호양의 정신을 발휘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나는 먼저 지난번 제5차 회의때에 논의된 내용부터 정리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귀측은 지난번 회의에서 당초 『9개조 30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속합의서의 형식을 바꾸어 『8개장 34개조』로 구성된 새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귀측의 이 수정안은 비록 내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으나 우선 형식면에서 장으로 구성된 우리측 합의서(안)에 접근시킴으로써 토의진전과 의견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한 점에서 귀측의 이러한 노력을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부속합의서의 형식 문제에서 쌍방 의견이 이처럼 접근된 이상 나는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는 지난 제5차 회의에서 밝힌 귀측의 입장에는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몇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남북쌍방간에 이미 합의했던 사항들에 대해 귀측은 『논의되었던 바는 있지만 철회한 바는 없다』고 강변한 사실입니다.

귀측도 아다시피 귀측 수정안 제1장의 1조, 3조, 4조와 제3장의 14조 그리고 제6장의 29조는 남북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귀측 스스로 철회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이제와서 철회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백남준 위원장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2차 대표접촉에서

『우리가 종전에 쌍방은 상대방의 사상을 신봉하고, 상대방을 찬양하는 출판활동자유를 보장하자는 안을 내놨다가 철회했어요. 결코 그쪽에서 이것을 의구심을 가지지 마시오. 이걸 사실대로 하자는 겁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3차 대표접촉에서는 『우선 우리는 합의서의 서문에 북과 남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문구를 명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화해부분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현대신에 “상대방에 존재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을 쓰며 귀측에서는 “상대방에 존재하는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하면서 이를 철회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의 총리가 서명하고 최고당국자가 재가하여 발효시킨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분명히 제외시켰던 것을 귀측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은 합의사항을 스스로 위배하는 행위로서 부속합의서 작성에 난관을 조성하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는 귀측이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에 대해서 『현상고착과 분열지향』, 『반목과 대결의 지속』, 『외세의존적 입장』, 『신의를 저버리는 것』 운운하면서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두고 오늘 귀측 주장의 부당성을 일일이 지적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화상대방의 제안내용을 두고 이런 일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귀측이 우리측 합의서(안)을 두고 이러한 비난을 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를 제대로 이행·준수하지 않으려는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측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존중하기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귀측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마당에 나와서는 『실체인정』을 거부하면서 우리측 제안을 『분열지향적』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심지어 상대방 체제를 존중하는데에 예외조항 또는 유보조항까지 두려하고 있습니다.

귀측은 또 작년 9월 유엔헌장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면서 우리와 함께 유엔에 동시가입하는데 호응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지금에 와서는 유엔헌장과 규정들을 준수하자고 하는 우리측 제안을 『외세의존』 운운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뒤가 다른 이러한 귀측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유엔 동시가입에 호응했고 또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한 이상 당연히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우리측 합의서(안) 제1장 총칙의 『특수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귀측은 이 『특수관계』문제와 관련하여 『부속합의서 제1장 총칙으로 설정한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귀측의 이러한 주장 역시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상호체제 인정·존중』을 회피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측도 아다시피 우리 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쌍방 사이의 관계가 대외적 관계이든 쌍방사이의 관계이든 간에 통일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 서로 화해하고 불가침하며 교류·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를 관장하고 있는 정치분과위원회가 이 전문 부분을 다루는 것은 그 성격상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상호체제 인정·존중에 합의한 이상 남북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 제1장 총칙에서 이 『특수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준수해 나가는데 있어 이를 기본으로 삼아 나가자고 하는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지난번 회의에서 귀측이 마치도 『여러개의 부속합의서 작성의 불합리성』을 우리측이 인정하고 『일괄합의, 동시실천』원칙과 아울러 하나의 포괄적인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우리측이 동의한

것처럼 주장한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측은 『여러개의 부속합의서 작성의 불합리성』을 인정
한 일이 없고, 하나의 포괄적인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한 일도 없
을 뿐 아니라 『일괄합의, 동시실천』원칙에 합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우리측의 기본입장은 어디까지나 필요시 얼마든지 새로운 부속합의서를
생산하고 보충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며, 경중과 완급에 따라 『건별합의,
즉시실천』원칙에 의거하여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
다.

귀측은 합의한 사실조차 없는 일을 두고 합의한 것처럼 강변해서는 안되
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가 발족한다고 해서 곧 남북고위급회담이나 남북정
치분과위원회의 운영이 중단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귀측이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포괄적 단일합의서』나
『일괄합의, 동시실천』 운운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남북기본합
의서 정신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나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정치분과위원회가 귀중한 시간을 불필
요한 논쟁으로 낭비해서는 안되며 맡겨진 막중한 임무에 맞게 보다 건설적
이고 생산적으로 회의를 운영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따라서 나는 지난번 제5차 회의때의 토의결과와 귀측의 입장을 감
안하여 새로 마련한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의 수정안을 제시하려고 합니

다.

우리측이 새로 수정한 부분은 크게 보아 두가지 입니다.

그 첫째는 귀측도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측 부속합의서(안) 제2장 『체제(제도)인정·존중과 내부분제 불간섭』을 두개의 장으로 분리하여 제2장 『체제(제도)인정·존중』과 제3장 『내부분제 불간섭』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우리측은 종전의 부속합의서(안) 제2장을 이처럼 제2장과 제3장으로 분리한데 따라 그 속에 담겨질 해당 조문들도 새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는 귀측이 『이행기구』를 부속합의서에 별도의 장으로 편성한 사실을 고려하여 『이행기구』를 우리측 부속합의서(안) 제8장으로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새로 신설한 우리측의 이 『이행기구』부분은 귀측 제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다만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증지실무협의회』의 구성을 명시한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측도 『화해분야에 화해공동위원회를 내오되, 그 산하에 필요한 실무협의회, 예를 들면 비방·중상증지실무협의회, 법률실무협의회 같은 것을 두기로 합의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의 수정된 부분만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중 수정부분

제 2 장 체제(제도)인정·존중

- 제 3 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 정부의 해당지역에서의 관할권을 인정·존중한다.
- 제 4 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인정·존중한다.
- 제 5 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존중하며, 어느 일방도 국제적으로 다른 일방을 대표하거나 다른 일방을 대리하여 행동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내부분제 불간섭

- 제 6 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범질서와 상대방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 7 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외교정책과 외교행위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 8 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이 제3국과 맺은 쌍무적·다무적 관계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이행기구

- 제31조 남과 북은 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다음과 같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1. 이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적·제도적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법률실무협의회
2. 이 합의서의 제4장 비방·중상증지 부문의 이행·준수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비방·중상증지실무협의회
3. 그 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실무협의회

이상의 수정내용에 따라 종전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의 장, 조 구성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종전 안의 제3, 4, 5, 6장은 제4, 5, 6, 7장으로 되며 제7장은 제9장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종전 안의 제8조와 제16조는 수정안 제32조로 통합되었으며,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는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한 조항씩 당겨지고 제32조와 제33조는 제33조와 제34조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나는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의 수정부분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은 이러한 수정작업으로 말미암아 당초의 「7장 33개조」로부터 「9장 34개조」로 재조정되었으며, 이는 귀측의 「8장 34개조」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측의 이번 수정안은 그동안 귀측이 제기해왔던 의견을 받아들여 제2장을 남북기본합의서의 조문 순서대로 제2장과 제3장으로 분리하였으며 『이행기구』를 제8장으로 별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측이 이처럼 귀측 주장을 받아들여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남북화해분야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속히 타결짓고 설정된 기한내에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려는 성의있는 노력의 표시입니다.

나는 귀측이 새로 내놓은 우리측 수정안을 토대로 하여 맡겨진 임무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 오늘의 기본발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기본발언의 일부로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쌍방 법령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상대방이 서로 참고하기 위해서 입수를 요망하는 법령의 목록을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수하고 싶어하는 귀측의 법령목록, 이진 물론 한꺼번에 모두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화해분야의 부속합의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건의 법령목록을 오늘 귀측에 넘겨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들의 요망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에 상응해서 귀측에서도 우리측의 법령 가운데서 귀측이 입수하기를 희망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목록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지금 기본발언에서는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수정한, 재조정된 부속합의서 수정안의 내용을, 전문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을 자료로 건네드리겠습니다.

이 넘겨드린 법령목록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백남준) : 뭐 읽지 않아도 됐소. 다 썼겠죠?

남(이동복) : 네, 괜찮습니다. 이 건명이 있으니까.

북(백남준) : 우리도 오늘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오늘 가지고 나오는 건 약속 못하겠다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남(이동복) : 설명은?

북(백남준) : 설명도 생략하죠.

남(이동복) : 그래서 이 설명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아까 백위원장의 기본발언을 들어보니까, 몇가지 기본발언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측의 해명을 희망하시고 해명을 듣고 나서 본안 토의에 들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북(백남준) : 이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전번에 판문점에서 열렸던 적십자 회담 실무대표접촉, 그리고 협력, 교류분과위원회 회의, 핵통제공동위원

회 회의에서는 『그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언론의 오보다』 또 『발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 뭐 이렇게 대답이 됐어요, 그 쪽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위원장과 마주 앉게 된 조건에서 이위원장이 그와 관련해서 명확한 이런 입장을 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이동복) : 그러면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기본발언의 말미에서 백위원장께서 세가지 해명을 요구하셨는데, 사실은 그 앞에서도 몇가지 해명을 희망하신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제가 해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낭독하신 기본발언 9페이지, 아홉쪽에서 제3국과 맺은 조약이나 협정들과 관련해서 우리측의 합의서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좀 의외의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북(백남준) : 저 이위원장 말씀 도중에 안됐는데, 우리쪽의 부속합의서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견이 있는거는 그거는 있다가 우리 토론할 때 그때 이위원장이 말씀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핵문제와 관련해서 그쪽에서 여러가지로 얘기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만 하고. 그 다음에 3국과 체결한 이런 조약문제나 내용상 문제에 대한 것은, 있다가 부속합의서안을 토론해야 되겠으니까, 그때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이동복) : 어떻습니까? 이 백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내가 말씀하

면 더 효율적이 안되겠어요?

북(백남준) : 아니, 글썄, 그거…….

남(이동복) : 이왕 내가 말했으니까.

북(백남준) : 네, 그거 좋습니다.

남(이동복) : 그래서 그렇게 하는게 좋을 거 같아요.

북(백남준) : 그렇게 합시다.

남(이동복) : 그러면 3국과 맺은 조약, 협정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은 우리 부속합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외로 생각하는 것은 며칠전에 하와이에서 학술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귀측의 이삼로, 군축문제, 평화, 지금 일·조국교정상화 회담에 수석대표로 나가있는 그분이 거기서 발표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이 문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통일된 연방국가는 비핵평화에 호정책과 중립적인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통일이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와 맺은 모든 조약들을 존중하게 될 것이며, 외국의 이권도 그대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과는 어떻게 관계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한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3국과 맺은 조약이나 협정들 가운데 일부를 선별적으로 해서 문제삼으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 생각에는 기본합의서의 명분과 그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백남준) : 어느거요?

남(이동복) : 그건 제3국과 맺은 조약, 협정들을 일부 문제삼는 것은.

그 다음에 비방·중상행위와 관련해서 관·민영을 막론하고 어떤 언론기관이나 어떤 수단방법으로도 상대방 비방·중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귀측 부속합의서(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헌법질서를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기본합의서의 정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합의서의 정신이 쌍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존중하는데 있기 때문에 쌍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헌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체제와 제도의 문제를 조정해 가는 일련의 과정이 따라야 된다.

그 이전에 우리의 남북관계의 시작은 남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체제와 제도에 입각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체제와 제도는 어디에 표현이 돼 있느냐? 그것은 서로 상대방의 헌법에 또 헌법질서에 표현이 돼 있다, 헌법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측의 헌법을 시비 안할 것이고 귀측은 우리의 헌법질서를 시비하면 안된다. 그것이 우리가 남북대화, 남북관계가 갖는 하나의 한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귀측의 헌법과, 노동당규약과 기타 여러가지 법규를 문제삼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남북관계가 요구하는 상호성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한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아주 귀측의 논리가 천부당 만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꾸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6·25전쟁의 뒷처리입니다. 그런데 6·25전쟁이라는 것이 자꾸 귀측에서는 귀측과 미국과 한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6·25전쟁이 귀측과 미국과 한 전쟁입니까? 그것은 남북간에 일어났던 전쟁이고 당사자가 남북쌍방이에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쳐들어 감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지 어느 한쪽이 미국을 쳐들어간 전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전쟁과정에서 아주 귀측이 이것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뒤에 유엔에서 유엔군사령부를 만들었죠. 참전 16개국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싸움을 대신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쟁지휘권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유엔군사령부가 만들어졌고 다른 참전 16개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부에 위임을 했고 그리고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휴전협정도 물론 서명은 「마크 클라크」라고 하는 미육군대장이 했지만 그 사람은 미군사령관의 자격으로 한게 아닙니다. 유엔군사령관의 자격으로 한거예요.

유엔군사령관의 자격으로 비단 미군뿐만이 아니라 참전 16개국 군 그리고 한국군을 포함해서 여러나라의 군대를 총괄하는 유엔군사령관으로 휴전협정에 서명한거죠. 또 휴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간의 협정이 아니예요. 야전군 최고사령관간에 맺어진 전지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문제는 전쟁문제가 그랬던거나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남북간 쌍방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귀측이 그러한 입장에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토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우리측 입장을 말이죠 철회하라 하는 요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핵문제에 대해서 아까 요구하신 거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핵문제와 남북대화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백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6월 26일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와 6월30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우리 입장이 명백히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백히 된 걸 정리를 합니다.

남북대화에 관한 우리 남측의 입장은 남북기본합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준수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각기 합의된 시일안에 필요한 부속 합의서들을 작성함으로써 이미 구성되어 있는 공동위원회들을 조속히 가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핵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비핵공동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합의된 기일안에 맡은 바 임무인 사찰규정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비핵화공동선언이 이행·준수되지 못하는 상태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전망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크게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조속히 사찰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하여 남북상호사찰을 실현시킴으로써 핵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 사업은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대로 다른 문제와 연계시켜서는 안되며 아무런 조건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끝난 뒤에 귀측의 안병수대변인이 기자회견석상에서 분명히 이 이산가족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연계시키지 않는다, 무조건적이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최근 핵문제에 관한 귀측의 일련의 발언을 보면 귀측의 발언에는 어떤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측에서는 지난번 실시되었던 영변지역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제1차 사찰로 귀측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 입각해서 우리가 소위 제2의 핵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귀측의 주장은 완전히 일방적인 것이고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먼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은 핵무기비확산조약 당사국이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이나 지연돼 오다가 이제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에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영변지역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제1차사찰 결과로 귀측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된 의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혹은 핵문제에 관한 귀측의 주장의 신뢰성에 관한 것입니다.

귀측은 적어도 지난 4월초까지는 영변지역에 있는 여러가지 핵시설의 존재를 시인한 일이 없습니다. 귀측은 영변지역에는 소련이 넘겨 준 소규모의 핵에너지 연수시설이 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변에는 엄청난 핵시설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귀측의 언행의 신뢰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의혹은 영변지역에 존재하는 것처럼 밝혀진 여러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귀측의 엇갈린 설명에 관한 것입니다.

귀측은 영변에 방사화학실험실을 건설중이라면서 이것은 핵재처리시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돌아 본 국제원자력기구의 「한스블릭스」 사무총장과 사찰단은 이 시설이 준공되기만 한다면 분명히 재처리 공장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이 시설의 건설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우리와 합의하여 발효시켜 놓고 있는 비핵화공동선언에서 재처리시설은 물론 우라늄 농축시설도 보유하지 않기로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측이 말하는 소위 방사화학실험실은 그자체만으로도 이미 남북간의 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이 시설의 건설을 계속하여 완공시키겠다고 공언함으로써 비핵화공동선언을 아예 무시,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측은 영변에 위치한 전기출력 5 μ W의 원자로를 1986년이래 가동해 오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한다면 이 원자로를 1986년부터 가동해 왔다면 그동안 상당량의 핵연료 폐기물이 생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측은 핵폐기물이 없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

귀측은 귀측이 이미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귀측은 귀측이 추출한 플루토늄이 극히 미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무리 소량이라도 플루토늄의 추출은 재처리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측이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면 귀측은 이미 재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귀측의 소위 방사화학실험실이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라면 귀측은 이와는 별개의 재처리시설을 따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귀측이 재처리시설의 중간실험시설 즉, 파일롯·플렌트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고려때문에 모든 핵시설은 파일롯·플렌트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귀측만은 파일롯·플렌트도 없이 바로 본시설 건설을 시작했다는 것은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한 차례의 사찰만으로 귀측에 대한 핵의혹이 해소되었다는 귀측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사찰만으로는 귀측에 대한

핵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특별사찰을 포함하는 남북상호사찰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 집행이사회에서는 35개 이사국 가운데 22개국이 공식발언을 통해 그와 같이 요구했으며 이달 중에 귀측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사찰을 다시한번 실시하고 또한 정규사찰이 뒤따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그리고 미국과 일본간의 정상회담은 물론 유럽공동체 12개국 공동성명에서도 귀측의 핵무기 개발의혹은 남북상호사찰의 실시가 없이는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귀측은 우리측 지역내에 이른바 미군의 핵기지, 핵무기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이를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상호사찰을 지연시키는 구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귀측의 행동은 우리가 보기에는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측 지역내에는 미군의 핵기지가 핵무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태우대통령은 작년 12월 18일에 핵부재선언을 통해 이것을 분명히 한바 있습니다.

그 뒤 귀측은 기회있을 때마다 노대통령의 이 선언을 믿기 때문에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측 지역에는 새삼스럽게 사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핵기지나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호주의와 동수개념에 입각하여 남북의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

의 실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무기, 핵기지가 사찰의 대상이 되는 만큼 남북 쌍방이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군사기지든 민간기지든 사찰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군사공동위원회가 신뢰구축 차원에서 행할 군사기지사찰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측의 핵개발문제는 이 문제에 관한 귀측 언행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와 핵시설의 내용에 대한 엇갈린 설명으로 인한 혼선의 문제, 그리고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귀측 핵시설의 안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의혹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의 조속한 근원적 해결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가 다뤄짐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돼 나가는 돌파구가,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측의 분명한 입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저와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인용한 것이 있는데 요게 좀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귀측은, 백위원장계선 최근에 한 기자회견에서는 『그 누구의 핵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것이 해결됨이 없이는 오는 9월까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위원장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지난 6월19일날 제가 우리 국민대학교 세미나에서 한 강연, 연

설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한 건데 거기서 제가 말씀한 것을 인용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기본합의서 발효이후에 남북관계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합의서 발효이후에 남북관계의 과제설정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이후에도 남북쌍방의 기본합의서의 성격과 기본합의서 각 조항들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3개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속합의서 내용에 관한 협상이 크게 난항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핵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한게 아닙니다.

지금 3개분과위원회 진행속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혼선이 생기는 것은 당초에 제가 준비했던 초안에, 그 다음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비록 쌍방간에는 이들 부속합의서를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쌍방간에 존재하는 이견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일정이 과연 지켜질지에 관해서는 불투명한 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했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발표할 때

이것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뻘어요.

그런데 이 초안이 어떻게 우리 언론에 나간 부분이 생겨가지고 언론에서 이 부분을 내가 생략한 것을 미처 모르고 일부 보도가 있다가 이것이 빠진 사실을 내가 알렸기 때문에 그다음엔 언론에서 이걸 전부 이것을 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로 핵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한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발표한 내용도 아니고 발표한 내용과는 상당히 좀 잘못 와전돼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자아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림으로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이상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8·15 이산가족노부모방문단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병수대변인의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는 아까 우리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합의한대로 이행을 해야된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백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귀측은 민족앞에 엄숙히 서약한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대로 이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대주의적이며 외세의존적인 입장, 자주적인 입장,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4남북공동성명 관계인데요. 7·4남북공동성명과 관련해서 통일3원칙 「자주, 평화, 단결」 이것은 우리가 남북간에 합의된 역사적인 의의를 지니는 원칙으로 우리가 지금 매번 남북간에 합의를 생산할 때마다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3개 원칙의 해석에 관해서 남과 북이 지금 상당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견의 차이는 좁혀야 됩니다.

이 좁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속합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속 합의서 협의라는 것이 바로 이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냐 하는데 관한 쌍방의 입장의 차이를 좁히는 작업이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인제 백위원장께서 모두 기초발언에서 저한테 물어 주신데 대해서 대개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 누락된 것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체제인정·존중과 관련해서 8페이지입니다마는, 북남화해를 부정하고 대화일방을 적으로 규정한 법률까지 철폐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법률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남과 북의 법령을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그 파악된 실태에 입각해가지고 남북간에 분열의 요인을 줄이고 화해와 단합의 요인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체계를 정비해 나가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왕 귀측이 이문제를 거론했으니까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던걸 말씀드리는데요.

그저께 귀측 평양방송 오후 6시30분에 보도를 보면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개별적 또 집체적으로 의거하여 오는 적군대 복무자들을 대우함에 관한 군사위원회 결정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문의 보도입니다.

이 군사위원회 결정의 내용을 전문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전문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을 보도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북(백남준) : 어느 방송입니까?

남(이동복) : 평양 방송입니다. 평양방송 오후 6시30분인데.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별적 또는 집체적으로 의거하여 오는 적군대 복무자들을 대우함에 관한 군사위원회 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위원회 결정, 개별적 또는 집체적으로 의거하여 오는 적군대 복무자들을 대우함에 관하여』 이래 가지고, 여길보면 우리 군대는 괴뢰군이고, 우리는 적입니다.

이런 것이 이 시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되는 것이 과연 이 기본 합의서 시대에 들어온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나중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해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좀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털어버리고 아까 제가 기초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시각부터는 부속합의서 쌍방 수정안이 체제면에서 많이 근접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제 말씀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백남준) : 그러니까 기본발언, 보충발언까지 해서 혼자 다 하셨구만요.

남(이동복) : 아니, 물어주셔서, 말씀하라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북(백남준) : 수고를 했습니다. 수고를 했는데 두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귀측에서 기본발언에, 보충발언에서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본문제 토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와 관련된 우리의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우리가 질문한 문제와 관련한 대답에서 핵사찰 문제를 가지고 기본합의서 이행을 차단하겠는가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런 질문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결국 우리가 지금 핵의혹이 있는 조건에서 이게 남북관계의 진전이 어렵지 않는가 하는 전망을 말한게고 이게 해결되면 남북관계가, 북남관계가 촉진될 것이라는 희망을 말한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이동복) : 그렇습니다.

북(백남준) : 그러면 이거이 북남관계의 개선, 그리고 합의서이행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남(이동복) : 아니죠. 그렇습니다.

북(백남준) :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말씀은 이 부속합의서

작성이 8차회담전까지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 하는 얘기는 원래 그 세미나에서 위원장이 원래 기초보고를 하는 걸로 하는데, 그걸 삭제했는데 하고…….

남(이동복) : 핵문제와 관계도, 관계하는 것도 아니고.

북(백남준) :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쌍방이 견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협상이 좀 난하게 됐다.

남(이동복) :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북(백남준) : 이걸 말한거지 부속합의서 작성을 안하겠다고 단정해 말한거는 아니다.

남(이동복) : 그렇습니다.

북(백남준)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말씀 중에서 먼저 기본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아까 첫발언에서 부속합의서 문제와 관련된건데 그쪽에서 오늘 1장과 2장을 통합해서 한개 장으로 설정했던거 그거 분류해가지고 온거하고, 그다음에 이행기구조항을 우리한테 맞춰서 그래서 수정안을 가지고 나온거 이거는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이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뭐냐 이거는 구조상 조정뿐이다. 내용에서는 그쪽에서 부속합의서의 목적, 그다음에 특수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총칙을 포함해서 내용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조정도 없이 그대로 제기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국과 맺은 이런 협정문제와 관련해서 그쪽에서 이삼로고문

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걸 난 아까 간단히 자료를 인용
을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통일돼도 북과 남이
각기 다른나라하고 체결한 법률이랑 조약이랑 이런걸 존중한다, 이렇게
했다는데, 이 무슨 뜻이냐 그말이죠?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제기를 하는
3국과 체결한 협정문제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하는거가 모순되지 않느냐
그 얘기겠죠?

남(이동복) : 그렇습니다.

북(백남준)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까발겨서 얘기를 안하겠는데,
우리는 지금 그 연방제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삼로그문이 얘기한거 같습
니다.

우리는 연방제를 어떻게 하자는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하자,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자,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결국 남측이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조건에서 다른 나
라하고 체결한 조약, 법규들 이런거 우리는 존중한다, 존중하는데 어디까
지나 그것은 우리 민족문제, 우리 통일문제, 그거는 귀측의 내부문제와
관련돼서 다른 나라하고 체결한 그런거는 우리가 관여 안한다, 간섭을
안한다. 그렇지만 통일문제와 같은 이런 민족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다
른 나라하고 체결된거는 그쪽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자는거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남(이동복) : 이거는 이삼로그문 말씀은 요대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네.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이삼로그문의 말씀은,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네.

북(백남준) : 아니, 연방제통일을 통일과정에서 연방제통일이 실현되죠? 그때도 우리가 쌍방이 다른 나라하고 체결한거 존중한다.

남(이동복) : 여기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북(백남준) :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둔거다 그겁니다.

남(이동복) :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여기에.

북(백남준) : 예, 사실이 없으면 제가 설명한 대로.

남(이동복) : 여기는 그냥 통일이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하고 맺은 모든 조약들을 존중하게 될 것이며 외국의 이권도 그대로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남쪽에 있는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들의 이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통일국가에 대한 외국의 자유로운 투자가 적극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북(백남준) : 예, 알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디에 그런 민족이익에 저촉되는 것도 허용한다는 것도 없죠? 없고요.

남(이동복) :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면 북과 남이 현존사상과 제도를 용납
.....

북(백남준) :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돌아가셔서 그 아십시오. 그쪽에서 이삼로그문이 거기가서 했다는 그쪽에 보도된거이 오보라는거 그것 수정한 그런 기사도 나온거 있습니다. 그거 가 보십시오.

그다음에 비방·증상증지 문제와 관련해서 그쪽에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앞으로 이거 공영

에 대한거는 해가고, 그리고 비방·증상증지 문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개정해 나가겠다, 그 소리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명백히 한 것처럼 결국은 그쪽의 헌법에는 우리는 공영이고 민영이고 관계없이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민영과 관련된 비방·증상은 책임을 못지겠다 하는건 이걸 결국 비방·증상증지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에서 당사자 해결원칙과 관련해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쪽의 주장이 천만부당하다.

그쪽은 정전협정 계약 당사자도 아니며 실지 또 그런 실권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동시에 또 정전협정을 공식 무효화를 국회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정전협정에 규정돼 있고 유엔결의에 있는 대로 이거는 계약당사자간에 이 협정과 관련된 변화를 가져온 다음에야 귀측이 주장하는 당사자 해결원칙이 통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있다 기본문제 토의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내려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핵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먼저 말씀드릴거는 이제 핵문제와 관련해서 준비한 원고를 쪽내리 읽으셨는데 저는 그거이 그쪽대표가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서 보고를 제기

하면서 가져갔던 원안이고 전번 핵통제공동위원회때 공로명선생이 읽었던 것과 한자도 틀림없이 꼭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요 먼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우리측 위원장에 의해서 그 의미가 이미 상실된거다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회의장 안팎에서 귀측이 반복 핵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매우 이걸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귀측이 이런 핵소동과 관련해서 북남합의서의 운명이 또 부속합의서 채택의 전도가 매우 우려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다.

그리고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다. 또 모처럼 마련됐던 노부모방문단교환이 위태로운 경각에 이르고 있다. 말하자면 귀측이 바로 최근에 벌리고 있는 이 반복 핵소동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본문제 토의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합니다.

우리는 전번 회의때에 귀측이 무슨 남북관계 고위전략회의요, 미·일·남조선 3각 안보실무자회의요, 무슨 대북성명이요, 무슨 기자회견이요 하는걸 연일 벌려놓고 이 핵문제를 거론하면서 합의서 이행을 유보하겠다고,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재개도 고려하겠다고, 무슨 남북대화도 재검토하겠다고, 무슨 국제적인 제재, 강경정책도 고려하겠다고. 이런 극히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반복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서 엄중히 귀측

에 경고를 했습니다.

이 반북소동에서 이위원장이 앞장섰다는 데 대해서 더 말하지 않자고 합니다. 귀측은 옹당 우리의 이 경고에 심사숙고하고 자중했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귀측은 그후에 당정협의회라는 것을 벌려놓고 남북상호 핵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모든 북남교류를 유보하겠다는 결정을 내 렸습니다.

이것은 북남합의서 이행에 대한 노골적인 차단선언이다. 이제 이위원 장이 우리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제기한건 없다, 그건 희망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더 남북관계가 잘 되어 가지 않겠느냐 이런데 한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귀측 입장에 대한 명확한, 전제조건 이 아니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어쨌던 이 소동이 이 북남합의서 이행에 대한 노골적인 이런 차단선언이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귀측이 지금 떠들고 있는 이 핵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제 이위원장 은 여러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귀측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정기사찰을 통해서 우리가 핵에네르기, 핵에네르기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서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증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6월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모든 나라들이 한결 같이 우리의 평화적인 핵정책에 대해서 인정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우 리의 핵무기개발을 의심이 해소된 이런 조건에서 이제 남은 게 뭐냐, 남 조선에 있는 미국핵무기, 핵기지에 대한 전면 사찰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서 핵심문제이고 남북상호사찰에서 기본으로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 국제원자력기구의 핵기지 사찰을 통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걸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한 말에 대해서 명백히 그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거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서 귀측이 누구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걸 적반하장이다. 원래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라는게 어떻게 해서 제기됐습니까?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이 남조선에 비법적으로 핵무기를 반입, 배비한 때로부터 제기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핵위협은 귀측에 있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예. 그런데 있지도 않은 그 무슨 핵문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대해서 결국 운운하는 자체가 이게 불체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남핵사찰이 지금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그쪽에서는 우리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남측에 있습니다, 그책임은.

왜 우리가 북남간에 핵사찰을 반대하겠습니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을 받기한 것도 우리입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부정 못할 겁니다.

그리고 북남상호사찰을 제기한 것도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뒷때문에 우리가 북남간에 상호사찰을 반대하겠습니까? 북남상호사찰을 실시

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귀측에 있는 겁니다.

귀측은 뭇때문에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전면사찰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극력 반대하는가 그말입니다. 이걸 받지 않겠다 반대하다보니까 핵사찰규정이 채택이 됩니까?

그리고 북남합의사항도 위반되고 조선반도의 현실에도 맞지 않는 그 무슨 상호주의에 기초한 동수사찰이요, 무슨 군사기지사찰이요, 특별사찰이요 하는 걸 내세워 가지고 사찰규정 작성을 가로막지 않았는가?

그리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공동선언을 이행·준수하기 위한 합의서안을 오늘 현재 이시각도 내놓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상호사찰이 못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 귀측은 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백합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귀측에서 핵문제에 관심이 큰데 뭇때문에 미국이 핵무기를 끌어들이는 때는 말 한마디없이 그것을 그냥 용납해 놓고 지금까지 그것을 감추어 두자고 그토록 애를 쓰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 핵이 결국 민족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다,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다. 민족의 사활이 걸려있는 이 미국의 핵위협은 결국 눈을 감고,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핵위협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나서는 그 자체가 뭐이냐 그겁니다. 언어도단입니다, 언어도단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6차고위급회담 때 얘기를 했거던요. 우리가 현실적인 핵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대처 하자 하

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측에서 그걸 거부하고 그대로 일본에 갖다 일러 바친 것도 귀측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본을 끌어들여서 우리에게 대한 그 무슨 대응조치까지를 운운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이 위원장이 무슨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우리가 받았지만 의혹이 가셔지지 않는다, 앓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찰문제를 말하는거다 하는데 귀측에서도 지금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고 있는거로 압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귀측은 뒷때문에 자기가 받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거기에는 신빙성을 부여하고, 이위원장이 6차회담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회견에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핵문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 자,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기 때문에 거기는 핵위협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는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무슨 논리입니까?

국제원자력기구의 권위를 훼손시켜도 분수가 있지,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생역지가 어디 있는가 그말이에요. 이게 실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가 그말이에요,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무슨 핵부재선언을 했다고 하는, 그래서 핵이 없소, 그러면 부재선언을 해서 사실은 핵이 없다는게 사실이라면 무엇때문에 우리의 전면사찰을 받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걸 하느냐 말이에요. 왜

전면사찰을 안받는가?

그리고 귀측이 핵위협을 제거할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하면서 미국하고 일본을 끌어들여다가 무슨 유엔안보이사회에 무슨 강제사찰할 수 있도록 공동대처를 청탁하고 이것은 뭐인가 사대굴종 외세의존의 극치입니다. 반민족적이다 그말이에요. 격분스럽고 모욕과 수치까지 느낍니다.

지금 우리는 뭐인가 민족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는게 중요합니다. 지금 요즘 일제가 날조한 이런 을사5조약하고 정미7조약을 이거 무효화하고 바로잡고, 사죄도 받고, 보상도 받자, 우리가 공동대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는게 좋습니다.

그쪽에서 『1965년 한일조약에 의해서 그걸 무효화시켰다, 그런 조건에서 그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학술적 차원에서나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한일조약 자체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 조약 내용에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그 한국하고 일본사이 체결된, 언제 체결된거나 날조된건데. 그리고 요즘 그쪽에서 각계에서 말합니다. 그 한일조약이라는 게 매국적이고, 굴욕적이고, 비법적인거다. 이거 그 체결과정도 밝히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성을 보이라, 당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분이 안됩니다. 이거 공동대처를 하는게 좋습니다. 기회에 이걸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귀측에서 지금 벌리고 있는 이런 반복 핵소동이 미국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귀측의 정치적 의도와 관계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

동북위원장이 주역으로 놓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측 한 대북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올해 2월달에 미국이 남측에다가 북의 핵문제 우선타결원칙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북한에 핵이 실제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핵카드를 이용해서 북과 일본간의 수교도 제한하고 있고 북한의 변화도 유도해 내고 있다. 미국은 설사 북이 핵사찰을 받는다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핵카드를 이용하리라고 본다』.

자, 아까 이위원장이 말씀한 가운데도 『우리가 무슨 중간공정이 없이 이렇게 되느냐, 이게 은폐한게 있다, 의심스럽다』 그러는데, 이게 벌써 그전에 얘기를 한건데, 지금 그쪽에서 주장을 보면 딱 들어 맞는다 그말이야,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부시」도 불만족한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그쪽에서도 같이 불만족한다, 은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미국의 핵카드가 바로 미국이 쥐어주리라는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관계자는 이래요. 『핵무기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우리 관료들속에서 다 보편적인데 어째서 이걸 비판적으로 대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북에 대한 대결논리가 미국의 횡포에 대한 비판적인식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입니까? 미국이 핵각본을 쥐어주고 귀측당국은 이런 대결의식으로부터 출발해서 미국의 지령을 받들고 반복 핵소동을 벌리고 있다. 이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조선 그쪽의 출판물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만 전쟁」 이후 유달리 북의 핵사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라크의 경우처럼 북을 국제사회에서 호전적인 집단으로 부각시키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출판물은 어떠냐, 『그러므로 핵사찰 자체가 미국의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출판물은 또 어떻게 했는가, 『핵카드는 북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명한 일이고 여기에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른 예로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뭐 이 위원장 자신이 대변인이라는 이런 이름을 팔면서 그리고 정치분과위원회위원장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앞장에 서서 우리를 절고 북남합의서 이행을 차단하고 북남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세우려는 이런 의도를 공공연히 선언해 나온데 대해서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위원장은 지난 6차고위급회담 기자회견에서, 2월 20일날 기자회견에서 『북의 핵의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달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북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는 조건에서는 남북동시사찰은 이미 물건너 간 것이나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이위원장이 그로부터 며칠후부터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북이 핵상호사찰을 받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도 없다』고 주장해 나

오고 있고, 5차 핵통제공동위원회가 끝나자 바람으로 서둘러서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결렬됐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며칠후에는 대북성명이라는 걸 가지고서 『남북관계에 진전이 어렵다, 팀스피리트도 재고하겠다』고 우리를 참을 수 없이 걸고 들었습니다.

또 며칠전에는 그 무슨 세미나에 나와서 여러가지로 특수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가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가지 오해는 풀렸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격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이회담장 밖에서만 이러는가, 우리 오늘 여섯차례로 이렇게 마주 앉았으니까 사실 회담장 안에서 같다.

1차때 이위원장은 소관밖의 문제인 이 핵문제를 걸고 도발을 했습니다. 이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회담과 상관없는 문제인데 그런다고 하는데 그 상관없는 문제를 1차회의 때 이위원장이 들고 나왔다 그말이에요, 기본발언에서.

2차회의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무슨 획일적이에요 뭐요 하면서 우리 체제를 헐뜯었습니다.

3차회의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제도를 운운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주도하에 통일을 떠들었습니다.

남(이동복) : 안한다고 그랬지, 그때.

북(백남준) : 떠들었다고.

남(이동복) : 안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북(백남준) : 그래서 내가 서울에 나갔을때 나보고 앉아서 사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지만 어쨌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이렇게 하면 공산주의를 우리가 철폐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제도를 포기하면 우리 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통일이 되는거요, 이렇게 말했지.

남(이동복) : 그러나 그건 안한다고 그랬지. 그건 우리가 지금 우리 정책이 안하는거로 돼있지.

북(백남준) : 그 이해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회의 때는 어떻게 됐는가, 무슨 범청학련결성이요, 범민족대회 추진이요 하는 걸 우리와 결부시켜서 시비를 해 나섰습니다.

남(이동복) : 완전히 이동복 인민재판이네, 오늘.

북(백남준) : 아니, 다 들어보세요. 내 얘기 다 들어보세요. 5차회의 때는 어떻게 됐는가, 무슨 아무런 우리하고 인연이 없는 무장병력침투사건이요, 그 누구에 의한 6. 25전쟁 도발이요 운운하면서 또 자극해 놔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돼서 무려 4개월동안에 여섯차례의 이런 회의와 위원접촉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진전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의 핵카드에 따라서 극성스럽게 춤추는 것이 그렇게도 영예롭고 그렇게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영웅이 될라면요 민족적 영웅이 되고요, 영웅의 훈장의 탈라면요 우리 민족이 주는 훈장을 타야 됩니다.

이위원장은 이미 1970년초에 벌써 공식석상에서 미군은 외세가 아니라고 했던 말입니다. 1980년대초에는 미국에 건너가서 통일이 우리단체

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우리 분과위원회 3차회의 때에는 어쨌습니까. 미군이 외세가 아니고 미군철수가 자주원칙의 본질이 아니라고 이렇게 공공연히 주장해 나왔단 말입니다.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은 대결하려는 자세이지, 동족과 힘을 합쳐서 화해하고 단합해서 통일하자는 이런 자세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위원장이 반복소동을 그렇게 벌리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일 이위원장이 그러한 대결자세로서 계속 답습해 나오면 우리가 과연 이위원장하고 마주앉아서 이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공동위원회를 내오는 것 같은 이런 민족의 중대사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난 5월달에 벌써 부속합의서를 이거 다 채택·발효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걸 채택·발효시키지 못한 것도 그렇고 다른 분과들에서는 공동위기구를 다 내왔는데 우리 화해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못한 것도 이거는 우리 그 진실을 압니다. 이거는 자타가 다 압니다. 우리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벌리고 있는 이 반복소동이 지금 북남관계 전반에 어떤 후과를 미치고 있는 줄 압니까? 남북관계에 어떤 경지에 이르게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귀측은 더는 이런 무모한 반복, 반핵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마주 앉는다고 해도 옹당한 이런 결실을 이루지 못하리라는거는 이젠 명백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쪽에서 여러가지로 말씀한거 하나하나 내가 꼬집지 못한 이런 문제들은 결국 이제 부속합의서를 토론했다는 과정에 그에 대해서 우리의 견해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거만큼 그때 가서 마저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귀측이 이런 상호사찰 이 문제야 북남관계 합의서이행에 전제조건도 아니래지, 부속합의서를 8차까지 안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래지,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부속합의서 토의에 들어가자는거 말씀드립니다.

남(이동복) : 이제 시간은 노루꼬리만큼 남았네. 뭐 그렇게 꼬집기를 많이 꼬집어 가지고 좀 굽어주고 좀 이렇게 그런 것도 하시지.

북(백남준) : 아니, 꼬집는게 아니라.

남(이동복) : 그동안 내가 남북회담에 관계한 일에 사실 우리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바도 엄청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해주지.

북(백남준) : 그러기에 민족적 영웅이 될라면요.

남(이동복) : 그냥 꼬집는 것만 잔뜩 꼬집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상처투성이네.

북(백남준) : 아니, 70년대부터 남북통일을 위해서 거기에 이위원장이 참여를 했고 조절위원회 때부터 오늘도 하고 있고. 그 참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요.

남(이동복) : 내가 항상 여러번 말씀을 했는데 내가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 지, 절대 일을 때들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북(백남준) : 그런데 나는 뭘 생각하는가. 우리 부속합의서를 6차회담 때 나는 그 모든 분과위에서 다 할 수 있고, 다른 분과는 다 했는데 우리가 못한 화해공동위원회도 사실은 이위원장만 결심을 하면 할 수 있는거라 나는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걸 상당히 원망해요. 솔직히 말입니다, 난. 그렇지 않다면.

남(이동복) : 우리 백위원장께서 원망하고 계신거 알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계시는 우리 백위원장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든지 달래서 치유를 시켜드리고 그렇게 할려고 지금 우리가 애를 쓸려고 하는거니까 본업으로 돌아갑시다.

본업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뭐 日暮途窮이야 지금. 해는 노루꼬리만큼 남았고 인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에 그동안 두차례의 회담이 결길로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저기까지 했지요? 전문까지 했지, 전문.

북(백남준) : 그러니까 사회하는 쪽이 주관하고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는.

남(이동복) : 아니, 아니야. 지금 우리가 길을 잃었다간 제 길을…….

북(백남준) : 내가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사회니까.

남(이동복) : 또 괜히 꼬집지 말고, 다 꼬집었으니까 이제.

북(백남준) : 제가 얘기하는데 전번에 우리가 5차회의에서 합의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 제목에서 다른건 다됐는데 우리는 『...위한 부속합의서』하자고 했고.

남(이동복) : 『...을 위한』.

북(백남준) : 그쪽에서는 「...관한」으로 하자고 했죠?

남(이동복) : 「...에 관한」.

북(백남준) : 그래서 완전 합의를 보지 못한겁니다, 이 제목에서. 그리고 서문에서 우리는 「...위한」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위한」으로 봤습니다. 「...위한 부속합의서를 다음과 합의하였다」. 그렇게 「...위한」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남(이동복) : 「...위한」 그래요, 그래.

북(백남준) : 그러는 조건에서 우리는 제목에 「...관한」을 「...위한」으로 하자고 하니까 이위원장이 「그 조금 두고 있다 하자요」 그래서.

남(이동복) : 예, 오늘 하도 꼬집었으니까 백위원장 하자는데로 할게요.

북(백남준) : 그거 「...위한」.

남(이동복) : 그 「위한」? 좋아요 「...위한」.

북(백남준) : 「...위한」으로 누릅시다.

남(이동복) : 아주 그냥 얼마나 꼬집었는지 지금 정신을 못차리겠어.

북(백남준) : 그렇게 자꾸 나를 걸지 말라요.

남(이동복) : 꼬집기만 하면 양보하는거야, 이제.

북(백남준) : 그리고 서문에서 귀측의, 우리가 귀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남(이동복) : 「...한테 따라」.

북(백남준) :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데 따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남(이동복) : 「...합의한데 따라」 맞아요.

북(백남준) : 그리고 귀측의 괄호안에 이거 「기본합의서로 한다」는게 있지

요?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그걸 원칙적으로 빼기로 했습니다.

남(이동복) : 아니 그런데 이 뒤에 이거는 좀 제거합시다. 이게 지금 무슨 차이나 하면 귀측에서는 『남북합의서』라고 그러고 우리는 『기본합의서』라고 그러는데 이걸 순전히 부르는 편의예요. 그 뒤에 우리가 시간도 절약하고 용지도 절약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만약에 기본합의서가 귀측은 그동안에 『남북합의서』라고 오랫동안 사용해 왔거던. 우리는 또 『기본합의서』로 오랫동안 사용해 와서 사람들이 다 귀에 익어요. 그러니까 이걸 매 똑같은거니까 상호편의주의로 합시다. 우리는 그냥 『기본합의서』라고 그러고 그쪽에서는 『남북합의서』라고 그러고.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북(백남준) : 아, 고걸 넣지 않으면 또 뭐이라고 하겠습니까?

남(이동복) : 아니, 그러면 전부 그걸 수고스럽게 말이야 그 합의서 나올 때마다 『남북사이에 화해와 불가침...』이 부르는데도 아주 얼마나 숨이 넘어가는지.

북(백남준) : 아니, 그러니까 『북남합의서』 하자 그러면. 그리고 그쪽은 『남북합의서』라고 하고.

남(이동복) : 아니, 글썄 내가 그 얘기야. 지금 우리는 『기본합의서』로 모든 사람이 귀에 익어 있어요. 뭐라고 그걸 갖다가 아무 가치부여적인 것도 아닌데.

북(백남준) : 그쪽에서는 이제 『기본합의서』라고 그쪽 사람들의 귀에 익어 있고, 우리쪽에서는 『북남합의서』라고 익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편리한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남(이동복) : 그렇게 하자고.

북(백남준) : 우리가 「7.4공동성명」에서 주워진 조국통일 3대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는 그럼 뭐라겠는가? 최고기본합의서라고 하겠나?

남(이동복) : 아니, 『기본합의서』라는게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남북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고유명사고 약칭을, 하나의 약속이 『기본합의서』지 이게 『기본합의서』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왜 거기다 의미부여를 할려고 그래요.

북(백남준) :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다 박지 말자, 박지 말고 그쪽에서 편리한대로 사용할 때 『기본합의서』라고 하는거는 우리가 관계치 않겠고 또 우리가 『북남합의서』라고 하는거 그쪽에서 관계치 말고 그렇게 하면 될거지, 여기다가서 공식적으로 딱 요렇게 『기본합의서』다 이렇게 박지 말자 그런거예요.

남(이동복) : 가만있어 보세요. 조금만 있어보세요.

북(백남준) : 『...이하 ‘기본합의서’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

남(이동복) : 우리가 지금 여기 기본합의서가 언급된데가 몇군데가 있어요?

남(강근택) : 많이 있습니다.

남(이동복) : 많이 있어요?

남(강근택) : 많이 있어요.

남(이동복) : 1조에 있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1조에 있고, 1조, 2조.

남(김달술) : 2조3항.

남(이동복) : 2조3항에 있고, 그다음에, 이거 그냥 아주 줄이지 말고 약칭을 전부 빼지 뭐 그럼. 그리고 본래대로 명칭으로 부르지 뭐. 그거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북(백남준) : 예, 뺏시다.

남(이동복) : 싸울일이 없어서 이거가지고 싸우나.

북(백남준) : 예, 그 합의봤습니다. 야, 이랬으면 오늘은 한 4, 5장쯤 들어가겠는걸.

남(이동복) : 뭐, 요다음 회의 때부터 꼭 시작하면 한 50분동안 나를 꼬집겠구만, 꼬집으면 되니까.

북(백남준) : 무슨, 내가. 꼬집힐 일 했으니까 꼬집었지 뭐.

남(이동복) : 그래요. 좋아요.

북(백남준) : 그다음에 우리가 뭐인가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합의를 한게 말입니다. 귀측에서 『제1장 남북화해분야』라고 하는게 있지요?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그 『분야』라는거 빼기로 요먼저 합의했었습니다.

남(이동복) : 그래요, 좋아요.

북(백남준) :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인가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요먼저 합의를 한게 말입니다, 그 귀측에서 제1장 남북화해분야라고 하는게 있죠?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그 『분야』라는거 빼기로 요먼저 합의했됐습니다. 그래서…….

남(이동복) : 어디있어요? 『분야』를?

북(백남준) : 예, 예.

남(이동복) : 그렇지.

북(백남준) : 그 『분야』라는걸 빼기로 합의했됐습니다.

남(이동복) : 그대신 『남북화해』를 요렇게…….

북(백남준) : 예, 예.

남(이동복) : 묶음표로 저기…….

북(백남준) : 그렇게 됐습니다.

남(이동복) : 어, 그렇지.

북(백남준) : 그거 빼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뒤에 『의』를 넣기로 했습니다.

남(이동복) : 『의』를?

북(백남준) : 예, 예.

남(이동복) : 완전히 북의 페이스다. 모조리 부르면 되는구나.

북(백남준) : 아니, 그거 자기도 동의를 해놓고서는 또 뭐, 그저 양보만 한
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 『1장 총칙』은 우리가 없애자고 했고.

귀측에선 우리안 1장에서 사상이…….

남(이동복) : 『1장 총칙』?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1장 총칙』은 누가 없애자 그랬어요?

북(백남준) : 아, 우리가 없애자고 요구를 했고.

남(이동복) : 아, 아. 네.

북(백남준) : 귀측에선 우리안 제1장에 『사상』을 없애자고 제기를 했습니다.

남(이동복) : 아니, 그거는 그러지 말고 요걸 이렇게 합시다. 『1장 총칙』을 우리가 지금 이거 토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북(백남준) : 글썬, 그거는 누르자 그랬지.

남(이동복) : 그래, 그러면 우리가…….

북(백남준) : 글썬 그만두기로 했다 그말이야.

남(이동복) : 그래, 『제2장 체제(제도) 인정·존중』장하고 그 『1장 제도 인정·존중』장하고 여기도 그 인제 팔호하고 체제가 들어가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대비를 해 나갑시다.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1장 총칙』은 우리가 일단 옆으로 제쳐 놓고.

북(백남준) : 그러니까 『1장 총칙』은 우리가 숙제로 남았됐단 말입니다.

남(이동복) : 예, 그래요.

북(백남준) : 우리는 그건 불필요하다고 했고, 그쪽에서는…….

남(이동복) : 그건 알았어요.

북(백남준) : 그건 좀…….

남(이동복) :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북(백남준) : 「다시 토론하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남(이동복) : 자, 2장.

북(백남준) : 그다음에 이제 1장, 2장 합친걸 우린 분리 시켰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쪽에서…….

남(이동복) : 분리시켰고.

북(백남준) : 예, 분리시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인가, 우리
는 1장이 되고 그쪽에선 2장이 됐습니다.

남(이동복) : 2장이 됐습니다.

북(백남준) : 그걸 이제 토론하면 되겠습니다.

남(이동복) : 그래요.

북(백남준) : 그렇습죠?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예. 그럼 그걸 이제 토론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귀측이
『체제(제도) 인정·존중』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남(이동복) : 요거 비교표하나, 우리 만든거 하나 안드렸나? 뭐 아무 측에
서나 만들어도 이 비교표는 똑같은 비교표니까 요거 하나 좀 드리지. 우
리 저 백위원장(우리측 수행원을 향하여).

북(백남준) : 어, 이번에 새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남(이동복) : 비교표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이게 훨씬 좋다고.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이거 하나 좀 여분없어요? 누구 좀 가지고 있는거 양보하지.

이걸 가지고 하시는데 능률적이죠.

북(백남준) : 아니, 근데 여기 왜 우리측 대비표 없는가?

남(이동복) : 누구 낙서 안한거를 좀 하나 주시지, 누구 한분 있으시면은.

낙서 안한거 없으세요?

요걸 가지고 보세요.

북(백남준) : 아니, 우리것도 여기 있긴 있는데, 오늘 그쪽에 수정안?

남(이동복) : 예, 수정안, 그럼, 그럼.

북(백남준) : 예, 예. 그래서 결국…….

남(이동복) : 그거 인제 2페이지 입니다.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2페이지에…… 요 2장, 1장을 요렇게 딱 잘라냈는데.

북(백남준) : 예, 그러니까 요게 저 1장, 우린 『제도 인정·존중』이고 그쪽
에서는…….

남(이동복) : 『체제(제도) 인정·존중』

북(백남준) : 『체제(제도) 인정·존중』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이동복) : 맞습니다.

북(백남준) :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뭐인가하면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같지 않습니까?

남(아동복) : 어느 것이?

북(백남준) : 예, 1장 제목이.

남(이동복) : 1장 제목, 같애요.

북(백남준) : 같지요?

남(강근택) : 그 『제도』 괄호 쳐줘야지.

남(이동복) : 그 『제도』하고 그 괄호를 꼭 넣어야 됩니다, 체제에.

북(백남준) : 우리가?

남(이동복) : 그렇지.

북(백남준) : 우리가 여기 넣으렵니까?

남(이동복) : 아니, 요거는 우리가 비교하는건데 아마 귀측 문안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실무자들이 만드는데 그 체제를 갖다
가 그렇게해서 그렇지.

북(백남준) : 예, 예.

남(이동복) : 제도하고 괄호하고 체제, 괄호닫고 인정·존중, [...제도(체제)
인정·존중...] 이렇게 돼 있죠.

남(신광옥) : 예, 예. 그러면 괄호해서 『체제』 요걸 넣어야지요.

북(백남준) : 그러니까 이걸 저 무슨 이야긴가. 합의된 겁니다. 예?

남(이동복) : 합의된 거예요.

북(백남준) : 예, 제목이.

남(이동복) : 예, 예.

북(백남준) : 그다음에 우리 1조.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그쪽에 3조 됩니다.

남(이동복) : 우리 저 4조하고 1조하고 이렇게, 그 귀측하고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북(백남준) : 그렇지요. 우리 1조하고 그쪽의…….

남(이동복) : 4조하고.

북(백남준) : 4조지요?

남(이동복) : 네.

북(백남준) : 4조지? 이거 맞지요?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여기서 맞는데, 여기서 차이나는 점은 뭐인가? 우리측 안에
『사상』이 명기돼 있고, 귀측안에는 『인정』이란 문구가 없는 것입니다.

남(이동복) : 있어요. 우리가 넣었지. 넣었어요.

북(백남준) : 넣었습니까? 이번에 넣었습니까?

남(이동복) : 여기 있습니다.

북(백남준) : 그러면 우리가 『사상』이라는걸 여기서 지금 저…….

남(이동복) : 그걸 빼면 되는거지 뭐.

북(백남준) : 빼면 되는데.

남(이동복) : 빼면 되는 거지.

북(백남준) : 이걸 내 설명했는데, 놓자구요.

남(이동복) : 아니. 그 또 갑자기 무슨 말씀을…….

북(백남준) : 저 아까도 또 무슨 말입니까? 되게 그 첫발언에서 또 상당히 비난을 하더만.

남(이동복) : 왜 내가 비난해요?

북(백남준) : 그 철회했던거, 철회했던걸 또 놓자고 한다.

남(이동복) : 이걸 저 이미 없는 거니까.

북(백남준) : 아니 근데, 이게 저 뭐인가하면, 이게 사실 제도라는게 사상을 떠난 제도 있나요?

남(이동복) : 이걸 인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해야됩니다, 그러면은, 논문을.

북(백남준) : 아니, 내 저 무슨 이야기일까, 그 논문쓰기를 좋아하고 그 세미나를 가서 내 그 특수관계에 대한 기초연설을 한 거 내가 봤어요. 봤는데, 뭐인가하면…….

남(이동복) : 아니, 어디서 그 문안을 봤어요?

북(백남준) : 그래서 내 오늘 저 내 발언에다 말했습니다.

남(이동복) : 저 이상하네.

북(백남준) : 이거 저 이위원장이, 이위원장이 뭐인가? 학술논문을 갖다가 그것을 지금 정치분과 부속합의서에다가 자꾸 놓자고 한다고 내 그 아까 얘기 했는데, 그건 그만 뒤야돼.

남(이동복) : 아니, 그러고.

북(백남준) : 그래서 그러면 요문제는 우리가 조금 눌러 둥시다.

남(이동복) : 이거 보류예요?

북(백남준) : 예, 예. 보류합니다.

남(김달술) : 그대신에 그거, 사상문제는 보류로 해두시고, 그 체제 『상대방의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문화제도』 귀측에선 그렇게 돼 있는데.

남(이동복) : 복잡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체제 제도』 묶읍시다. 요걸 하나 타협을 하시지.

북(백남준) : 아이구. 야, 얼마나, 그게 얼마나 명백합니까?

남(이동복) : 아니, 정치…….

북(백남준) :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문화…….

남(이동복) : 전부 반복, 반복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용어상의 문제인데 그거는.

북(백남준) : 응?

남(김달술) : 용어상의 문제예요.

남(이동복) : 아니, 이거 누가 봐도 그렇지, 이게. 스페이스를 우리가 절약의 의미에서도 그렇지 이게. 그 정치, 경제…… 체제를 하는 거로 한번만 쓰면 되는데 여기다가 뭐 그냥 이 6번을 쓰고 앉아 있으면은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북(백남준) : 에이, 좋습니다. 그거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합의 본질로 됩니다. 그럼 뭐 나는 오히려 그런걸 명백하게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문화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면 더 명백하니 이럴때…….

남(이동복) : 아니, 그런 뭐 백위원장 말씀이 옳은데.

북(백남준) : 이럴때 하는건 더 명백한거 보다 또 뭐가 추상적인게 좋다고 해?

남(이동복) : 옳은데.

북(백남준) : 절약을…….

남(이동복) : 요새 세상에 그래 절약, 절약하는데 우리가 좀 절약하는 감
니아에 좀 들어가면 어때요?

북(백남준) :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인제 합의 못 본거는 그 『사
상』 문제입니다.

남(이동복) : 네.

북(백남준) : 요건 조금 눌러둡시다.

남(신광옥) : 『제도』 뒤에 괄호해서 『체제』 또 넣어야지요, 귀측에.

남(이동복) : 아, 그건 당연히 넣어야지.

북(백남준) : 아니, 그건 저 북남합의서대로 하면 돼요.

남(이동복) :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조문들이 다르니까 그 백위원장께서
백위원장, 그 북측안의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우리측안을 설명할
테니까. 그리고 또 우리측안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세요. 그 저 꼬집지 마
시고.

북(백남준) : 예, 그렇게. 근데 인제 아니, 꼬집진 않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우리측 안 2조, 우리측 안의 2조는 그쪽의 5조가 됩니까? 저 5조가 돼지
요?

남(이동복) :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는.

북(백남준) : 귀측의 6조.

남(이동복) : 우리 6조예요, 6조.

북(백남준) : 6조.

남(이동복) : 우리 6조예요, 6조. 나 이 『간섭하지 아니 한다』지?

이게 말이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3조하고 걸맞는거예요, 3조.

북(백남준) : 3조하고.

남(이동복) : 우리가 상대방 정부의 해당지역에서의 관할권, 이게 법질서란 말이예요.

북(백남준) : 어, 어, 그거는 인제 내 뒤에서 얘길 하겠습니다.

남(이동복) : 그거하고 인제 짝이 지어지는건데, 설명을 하세요.

북(백남준) : 아니 그거는 인제... 가만 있어라, 우리 저 『2조 법질서존중』 문제 인데, 그런데 그쪽엔 없나요, 이게?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없나요?

남(이동복) : 아니, 우리는 이 『법질서는 서로 간섭하지 아니한다』 하는게 6조에 있고.

북(백남준) : 6조지요? 그러니까 6조하고 여기 이렇게 맞먹는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안은 어떻게 돼있는가?

『북과 남은 북남합의서의 화해정신과 조국통일 위업에 배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한 각기 상대방의 법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구 그 쪽에서는 『북과 남은 각기 상대방의 법질서와 상대방 정부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남(이동복) : 음, 음. 그래요, 그래.

북(백남준) :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 여기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안에서 앞에 뭐 있는가 하면 『북남합의서의 화해정신과 조국통일 위업에 저촉되지 않는다』 요렇게 했습니다.

남(이동복) :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북(백남준) : 요거 왜 이렇게 하자고 하느냐? 우리가, 법질서 있지 않습니까? 귀측의 내부문제와 관련된 그런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하려고 안합니다, 안합니다.

남(이동복) : 그런데.

북(백남준) : 또 역시 우리측의 내부문제와 관련된 우리 법에 대해선 그쪽에서도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되는건 뭐이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화해하고 통일하고 이렇게 하는데서는 이거이 어느 한쪽의 내부문제 아니다 이거예요. 민족 공동의 문제다.

남(이동복) : 그거 예를 들어 보세요.

북(백남준) :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한건 무슨 이야긴고 하니까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런 구절을 뒤야 되겠다.

남(이동복) : 이렇게 되면은…….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이렇게 되면은 어떤, 내가 좀 의문을 제기할테니까 좀 말씀들어보세요. 요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거 또 법이 개정됐다고 그래서 인제 그 개정되기 전에 법을 가지고 내가 애길하는 건지 후의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북(백남준) : 우리 헌법이란 용어 좀 한번 보라요.

남(이동복) : 글썽 헌법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귀측헌법에 의하며는
.....

북(백남준) : 아니 그 저 옛날 보따리를 가지고서, 그 옛날것도 그쪽에서
문제 삼는거, 그거 내 여기서 대답하라면 하나도 그쪽에서 의혹가질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남(이동복) : 아니, 의혹가질게 없다니?

북(백남준) : 그렇지 만은.....

남(이동복) :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보세요.

북(백남준) : 아, 그건 이따 합시다. 좌우간, 그거를 얘기하시고.

남(이동복) : 글썽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남북간에 우선 『체제 인정·존
중』의 그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겠... 그 체제가 뭐예요? 지금. 남북
의 체제가?

북(백남준) : 아니, 그럼 내가 애길하지요. 그쪽 법에 현실적으로 이 화해와
통일에 저촉된 법 있어요.

남(이동복) : 어떤 법이 있어요?

북(백남준) : 국가보안법을 하나 듭시다.

남(이동복) : 그럼 귀측에 형법이 있지.

북(백남준) : 예, 그러니까.

남(이동복) : 귀측에.....

북(백남준) :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이제 보세요. 우리 헌법에 이런 통일문

제, 이런 민족문제에 저촉되는게 없습니다.

남(이동복) : 왜 없어요?

북(백남준) : 우리 개정한게…….

남(이동복) : 예를 들어서…….

북(백남준) : 아니, 개정한거 보시요. 이제.

남(이동복) : 아이구, 개정한게 없으니 말이야.

북(백남준) : 그런데, 아니, 이제 드린다구. 드리는데, 여기서는 원칙이니까 우리 그건 인제 법을 이렇게 놓고서 하는건 공동위원회에서 해야될 문제지. 여기서 어느 법을 놓고, 어느 법을 놓고, 몇조 몇항 요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인가 하면 우리가 그쪽 법을 다 존중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쪽에 있는 국가보안법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화해 정신에 맞지 않지. 이래가지고 그래 실지로 화해를 실현할 수 없지요.

남(이동복) : 그 백위원장 말씀에 아주 저 조금 중요한 문제를 내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금 이 구체적인 법률문제 같은 것을 그 공동위원회로 넘긴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백년하청이요. 밤낮 싸우다가 말아. 그거는 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돼.

북(백남준) : 이따가 저 아까 그 법을…….

남(이동복) : 그런데 지금 법을 몰라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지금 거론이 안돼요, 얘기 안돼.

북(백남준) : 또 두잡니까? 놀러 버립시다.

남(이동복) : 그렇지. 이거는 뭐…….

북(백남준) : 이걸 이제 명백해요.

남(이동복) : 그런데 그거.

북(백남준) :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아까 그러구 이위원장이 얘기한 가운데서 이것이 다 고위급회담도 다 그만 두자는 거이고, 분과위원회 다 그만 두자는게고, 무슨 얘기도 또 있더만이. 뭐 일괄합의, 동시실천 문제를 얘기하면서.

남(이동복) : 그러면 안된다는 거지요.

북(백남준) : 예, 우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남(이동복) : 그런데, 아주 백위원장한테 내 확인하나 해야 되겠어.

북(백남준) :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서 공동위원회 넘긴 다음에, 공동위원회 넘긴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 이거는 분과위원회에서 토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면 분과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거고. 고위급회담에서 토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면 고위급회담을 열고 토론하자는건데 그 왜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십니까?

남(이동복) : 아니, 오해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그 꺼꾸로 뒤집어서 얘길 하고 있으니깐 내가 지금 아주, 이게 완전히 아주 답답하기가 참, 짝이 없단 말이에요.

북(최성익) : 그러니까 요조항을 이해하는데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북남 화해를 하자, 요렇게 장 제목이 돼 있는 이상 화해에 저촉되는 거는 수정하고 고치자, 요거야 뭐 타당하지 않습니까?

남(이동복) : 자, 보류를 하고 그다음 넘어갑시다.

북(백남준) : 예, 그럼 그냥, 그다음에 우리측안 3조입니다. 우리측안 3조는 귀측안에 없습니다. 그렇습지요?

남(이동복) : 없어요.

북(백남준) : 그래, 왜 이걸 우리가 넣었는가? 그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3조, 『북과남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한다』 이건데요. 귀측안에 없는데 우리는 이 조항을 꼭 우리 부속합의서에 넣어야된다. 왜 그런가? 이건 북남화해를 위해서 필수적인게다, 필수적인 겁니다. 이걸 그쪽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또 어느 일방만이 저, 뭐인가 하면 임무를 지는것도 아닌 조항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문제는 꼭 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건 아까 우리 2조하고 결국 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남(이동복) : 그거 인제 두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야되는데, 하나는 이걸 우리가 기본합의서 합의과정에서 명백히 이거는 철회가 된 조항이에요. 그걸 하나 지적을 하고, 또 하나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한다』 그렇지 않아요?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그럼,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한다, 그러면 인제 우리 상을 귀측의 법률이, 법령이 말하자면은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거는 다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북(백남준) : 예, 그렇죠.

남(이동복) :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북(백남준) : 그렇지, 그렇지.

남(이동복) : 지금 귀측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국가보안법인데, 우리는 국가보안법 하나가 문제지.

북(백남준) : 아니, 5도민 법이고 뭐 지금, 좌우간 뭐, 술하게 많아요.

남(이동복) : 그러나 또 답답한 노릇이 말이에요, 지금 자꾸 인제 개정이 됐다 그러는데 상대방의 사상을 부정하는 것은 귀측의 헌법을 보면은 말이죠, 이거는 거재두량이야. 트럭으로 실어도 넘쳐 날 정도로 많다구.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우리같은, 가령 그 다원주의 사회, 다양한 사회를 용허 안하는 체제가 있잖아요, 귀측에? 이거 자체는 우리 체제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지, 긍정하는게 아니잖아요? 말뜻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돼가지고야 남북관계가 어느 하세월에 참,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바늘 구멍을 가져다가 뚫기 시작하겠냐 말이야.

북(백남준) : 아니, 그러면…….

남(이동복) :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본합의서에서, 합의서 협상때 이 조항을 뺐느냐? 남북이 말이지,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협상을 시작한단 말이야, 있는 그대로. 그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걸 합의해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상호신뢰라든가 이런것이 조성되고 동질성이 복원 되고 하면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 옮겨 가는데,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것을 갖다가 매달려가지고 남북간의 일이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이 빠진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북(백남준) : 아니, 그거에 대해서…….

남(이동복) : 그런데 왜 뺐던걸 지금 새로 가지고 나오는 거요?

북(백남준) : 아, 내 좀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조항을 안 넣으면요, 우리가 그쪽에 자유민주주의 사상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 옹, 그걸 우리가 문제 삼고 이렇게 해도 일없다 하는걸 이 부속합의서가 허용을 하게 됩니다.

남(이동복) : 아니, 자유민주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근본적으로 누구나 무엇이든지 문제삼고 비판할 수 있는 체제이고 질서예요. 그건 귀측의 체제나 질서가 그걸 못하게 돼 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질서는 그걸 하게 돼있는거라고, 원천적으로. 다만, 그것이 기본질서가 지켜져야 될게 있어서 그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신문 보세요, 왜 신문이 그렇게 참 황홀난측하게 들어가 있나.

북(백남준) : 그 다원주의 우월성이…….

남(이동복) : 아니, 우월성이 아니야, 우리가 비교를 이야기하는거지.

북(최성익) : 법적 질서를 존중한다고 하는데 실제 안그렇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북(백남준) :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뭐, 이거 가지고 또 오늘 다 보낼 수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뭐인가 하면 조국통일 3대 원칙 있잖습니까? 이걸 우리 부속합의서에서도 역시 이거 최고법으로…….

남(이동복) : 반대 없어요, 다만, 반대없어요.

북(백남준) : 최고법으로 봐야된다.

남(이동복) : 그러나 통일 3원칙은…….

북(백남준) : 그 나머지 법들은 하위, 하위법입니다.

남(이동복) : 그 반대없어요. 그러나 통일 3원칙은 지금 귀측에서 말하는 통일 3원칙의 내용하고 우리가 말한 통일 3원칙의 내용이 달라.

북(백남준) : 어떻게 다르다고? 난 그거 지금 자꾸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거요?

남(이동복) : 내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릴까요?

북(백남준) : 아니, 가만 그거는 저 뭐인가 하면 이따가 그 과학토론회나 마련해가지고…….

남(이동복) : 아니, 아니, 그거 다.

북(백남준) : 무대를 내가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그럼.

남(이동복) : 아니, 아니야. 다른걸, 다른걸 어떻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북(백남준) : 아니, 그거 뭐이 다르게 있어? 자명한건데.

남(이동복) : 아니, 자명하다니?

북(백남준) : 아, 자주적으로 한다는게 뭐인가? 우리 저…….

남(이동복) : 그래, 자주적이 뭐예요?

북(백남준) : 아, 자주적이란 뭐인가? 우리가 무슨 애긴고 하니까, 우리 조선민족이, 저 뭐인가하면…….

남(이동복) : 외세의 간섭이 없이…….

북(백남준) : 자기의 그런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남(이동복) : 그럼요.

북(백남준) : 우리의 주체적 힘으로 조국을 통일한다, 그게 자주의 원칙이.

남(이동복) :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돼요?

북(백남준) : 응?

남(이동복) : 어떻게 해야…….

북(백남준) :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한다는건 뭐, 외세의 일체 간섭도 허용하
질 말고, 외세에 의존하지도 말고.

남(이동복) : 언제 누가? 누가 외세의 간섭을 지금 반대하나? 외세의 간섭
을 없이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자주의 원칙은 그거 뿐만이
아니라 다른게 또 있어요. 뭐냐? 자주적으로 할려면 서로가 어떻게 만
나서 얘길해야 되느냐 하는것이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거기에서 소위
당사자 해결 원칙을 얘길하는 것이고. 당사자라는게 뭐예요? 우리는 대
한민국이라고 하는 법질서가 있고 귀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는 법질서가 있으니…….

북(백남준) : 아, 그 차이가 있습니다. 꽤 당사자를, 그쪽에서는 거기서 얘
기하는, 자주의 원칙에 당사자 문제도 얘기하는거는요…….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그거는 결국 뭐인가 하면 당국 대 당국이, 당국이 당사자가 되
자, 그말입니다.

남(이동복) : 그렇지. 우리는 자주의 원칙에 큰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라면
…….

북(백남준) : 그게 차이가…….

남(이동복) : 그게 차이가 있잖아? 지금.

북(백남준) : 그건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남(이동복) : 그거 차이가 있잖아? 지금.

북(백남준) : 우리는 자주의 원칙이, 자주의 원칙에서 주체를 우리는 뭐야,
민족, 겨레로 봅니다.

남(이동복) : 글썸, 그 차이가 있지 않느냐 말이야? 지금.

북(백남준) : 있지요?

남(이동복) : 내가 지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북(백남준) : 아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이냐,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문
제, 통일문제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에서는 쌍방이 호상 시비를 하면 안
된다. 공조로 해야 된다.

남(이동복) : 응? 공조?

북(백남준) : 응, 그렇죠.

남(이동복) : 글썸,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주의 원칙에 귀
축에서 따라와 줘야된다 하는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북(백남준) : 그럼, 당사자 원칙을 받아 들여야 된다?

남(이동복) :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돼, 남은 문제는?

북(백남준) : 그러면 당국만 해버리고.

남(이동복) : 아니지, 다…….

북(백남준) : 다른건 다 제거를 해버리고.

남(이동복) : 왜 그렇게 단순화 시켜서 애길합니까? 그 귀측의 아주 큰 문제예요. 뭐냐하면은 우리가 당국만이 하자는건 아니야. 우리 체제를 대표하는 것은 당국이 대표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이죠, 여러가지 방법의 논의와, 논란과 또 민주주의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지. 선거를 통해서도 참여하고, 공청회를 통해서도 참여하고, 국회를 통해서도 참여하고……. 그거는 우리한테 맡겨야지. 그럼, 우리가 귀측에다 대고 인제 시비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하년 그 자주의 원칙이 됩니까?

북(백남준) : 가만, 이걸 저 과학토론에 번져지는데요. 지금 그쪽에서는 당국이 대표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남(이동복) : 그렇지.

북(백남준) : 그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됩니다.

남(이동복) : 왜 안돼?

북(백남준) : 왜 그런가 하면 통일문제의 주체가 뭐이나? 주체가? 이건 민족이고 겨레입니다. 온 민족의, 온 겨레다 그말이야 그게, 통일문제, 민족문제 해결의 주체입니다.

남(이동복) : 그게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는거야, 차이가.

북(백남준) : 아니, 아니, 말씀들으시오. 그건 여기서 그렇게 되면 나는 이거 여기서 저 뭐인가, 그런 과학토론을 하자는거 아닌데, 난 이위원장이 말한것만 말하겠어요, 말한것만큼. 어디까지나 이 민족문제, 통일문제의 주체는 온 민족이고 온 겨레다, 온겨레다. 그러면 이 민족이라는 구체적

인 존재방식이 뭐이냐? 구체적인 존재방식. 민족이라는게 이게 자연인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닙니다, 민족이라는게. 그 구체적인 존재방식이 뭐이냐? 정당단체가 그 구체적인 존재방식이다.

남(이동복) : 그건 귀측이 그렇지.

북(백남준) : 그렇다면은 어디까지나…….

남(이동복) : 그건 귀측이 그렇지.

북(백남준) : 통일문제, 민족문제에서 대표성은 당국도 있지만은, 당국의 몫도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정당단체에도 대표성이 있다.

남(이동복) : 그건 귀측이 그렇다고.

북(백남준) : 나는 글썽,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남(이동복) : 그건 귀측이 그렇지. 우리한테 그걸 다…….

북(백남준) : 이위원장이 말한거는 아까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입장은 그렇다는 걸 알아두세요.

남(이동복) : 그럼 우리한테 그거를, 우리한테 그걸 강요하면 안돼! 우리한테 그걸 강요하면 안된다구!

북(백남준) : 아니, 그쪽은 그걸 또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라요, 그건 통하지 않으니까.

남(이동복) : 강요 안한다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 참견 안한다 그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참견하지 말아라, 그말이야.

남(신광옥) : 북측안에 5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북(백남준) : 뭐 있어요?

남(신광옥) : 『서로 북과남은 상대방의 제도와 질서에 대해 간섭하거나 자기의사를 상대측에 강요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북측안 5조와 북측안 3조 사이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모순이 생깁니다.

북(백남준) : 아니, 절대 모순이 없어요. 이제, 이제, 가만…….

남(신광옥) : 그렇지 않습니까?

북(최성익) : 그렇게 아니라…….

남(신광옥) : 벌써 달라지지요.

북(백남준) : 그렇게 앞질러 나가지 마시요. 그건 저 뭐인가 하면 그렇게 하면 자꾸 원칙문제 논의에만 자꾸 문제, 저 골수로 흐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 문제로 우리 토론합시다. 그래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견 호상 지금 합의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쪽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거고.

남(이동복) : 이견 이미 없어졌어, 지금.

북(백남준) : 아니, 불필요하다는게고, 그러니까.

남(이동복) : 아, 기본합의서에서 저, 당장 없어진건데.

북(백남준) : 요 문제도 역시 숙제로 둥시다.

남(이동복) : 이견 숙제도 아니야.

북(백남준) : 아니, 아니, 아니예요.

북(최성익) : 아니, 구체적으로 대책을 토론하는데. 그러면 뭐 사회상과 제도를 부정하는거 그대로 용인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응당 들어가야죠.

남(이동복) : 자, 또 말씀하세요.

북(백남준) : 그다음에 우리측안 4조하고, 4조인데, 이거는 귀측안에 없
습니다, 4조.

우리는 왜 이걸 넣었느냐? 상대방속에 참여하는 언론·출판·사상의
자유 보장해야 된다는거, 왜 이걸 넣는가?

우린 이걸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자는 이런 숭고한 목적에서 출
발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린 넣자는 거다, 이거.

남(이동복) : 거기에 대해 제 의견을 좀 얘기할까요?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얘기 할까요?

북(백남준) : 나는 뭐 그쪽에서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이동복) : 아니, 얘기 할까요?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지금 우리측의 언론을 보면은, 그 지금 백위원장께서 인제 아
까 그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지만은 소위, 반복 운운하는 말씀했지만은
가령 이제 이 특정문제에 대해서, 이 북측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보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보도도 있어요.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북의 체제를 소개하는 보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
다. 그건 우리 체제가 갖는 특징이야. 그런데 이 조항은, 우리 체제에는
우리가 가령 받아들일수가, 받아 들이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체제의

어떤 그 수용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조항은 남북간에 상호성이 있어야 돼. 북측에 이게 되느냐 그말이에요. 우리의 체제를, 우리의 자본주의를, 우리의 시장경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기본 자유를 북측에 소개할 수 있습니까?

북(백남준) : 아니, 우리는 저 무슨…….

남(이동복) : 소개할 수 있습니까?

북(백남준) : 우리는 철저히 헌법에서…….

남(이동복) : 헌법에…….

북(백남준) : 언론·출판, 그런 그 신앙, 사상의 그런 자유가 철저히 보장돼 있습니다.

남(이동복) : 헌법의 한 조항이 그렇게 돼 있지.

북(백남준) : 응.

남(이동복) : 그러나 다른 조항에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북(백남준) : 다른 조항이 뭐 있어요?

남(이동복) : 다른 조항에 가령 2조를, 이것도 고쳤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

북(백남준) : 아니, 그건…….

남(이동복) : 자,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노동동맹에 기초한……』.

북(백남준) : 또, 또….

남(이동복) : 『전체인민의 정치적 사상적 통일과…….』 이렇게 통일이 헌법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어디에 우리 체제의 소개를 합니까? 응? 또 여기,

지금, 얘기하시네. 『프로레타리아 독재 계급노선』 군중노선 있지. 또 『사회주의제도를 보유하며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 한다』.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가서 이 소개를 하나?

북(백남준) : 아, 우리야 공산주의자들인데 아니, 그래 저 뭐인고하면 아, 저 모두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노동계급이 되는걸 원하지. 아, 노동계급이 되지 않을거를 원하겠어?

남(이동복) : 그러니까 그거는 이걸 반대되는 소개는 못하는거 아냐.

북(백남준) : 응?

남(이동복) : 이거에 반대되는…….

북(백남준) : 아니, 글썸. 반대되는건 뭐예요? 자기 의사를 발표하는거 우린 그건 저 관여를 안하겠어요. 우리 언론들한테도 관여를 안해요.

남(이동복) :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보장한단 말이야?

북(백남준) : 응?

남(이동복) : 우리가 저 북에서 가령 우리 자본주의 사상이라든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런것을 소개하고 찬양하는, 응? 이 언론·출판·사상의 자유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북(백남준) : 아니, 그럼 저 우리는 거기 나가서 우리의 공산주의 사상 선전하는거 허용하겠어요?

남(이동복) :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얘기 하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그 문제의 정도로 봐서는 우리쪽에선 이미 절대적으로 이렇게
는 안돼있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상당한 정도 북측의 실상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백남준) : 아, 우리는 철저하게 소개돼 있죠.

남(이동복) : 뭐가 소개…….

북(백남준) : 거기서 그저 뭐인가 하면은 그쪽에 대해서 찬양하는거, 미국
을 찬양하는거, 그다음에 무슨 말인가, 그쪽에서 뭐인가 하면은 저 파업
일어나는거, 그 시위가 일어나는거 몽땅 다 해요. 우린 안하는거 하나도
없어요.

남(신광옥) : 그건 찬양하는게 아니니까.

북(백남준) : 아니, 찬양하든간에, 비판하든간에, 우리 그렇게 말하자면 이
런 출판의 이런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남(이동복) : 이거는 이 조항이 우리가 합의, 이 조항에 합의 할려면은 쌍
방간의 체제의 차이를 극복을 해야 돼요, 먼저. 서로 조건을 같이 만들어
놓고 해야된다 그말이에요. 조건을 같이 만들어 놓고.

북(최성익) : 아니, 그런게 아니죠, 그런게 아니죠.

남(이동복) : 응? 그러니까 이 한쪽은 손발을 묶어놓고 한쪽은 손발을 풀어
놓고 이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

북(백남준) : 그런데 이거 난 합의서가 왜 자꾸 한쪽에만…….

북(조상호) : 아니, 이건 민족적인 견지입니다. 민족적인 견지예요.

남(이동복) : 그, 아니.

북(백남준) : 애길해 보라요.

북(조상호) : 민족적인 견지지.

남(이동복) : 그 양쪽의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먼저 조건을 똑같이 만들려면, 이걸 할려면은 말이야, 이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찬양하는 언론
• 출판 • 사상의 자유, 이거에 대한 개념이 같아지고, 개념이. 우리가 개념이 다르단 말이야, 지금.

북(백남준) : 아, 같지요.

북(조상호) : 민족적인 견지입니다, 민족적인 견지.

남(이동복) : 개념이 뭐가 같애요?

북(백남준) : 같지요.

남(이동복) : 개념이 뭐가 같애?

북(백남준) : 같애요.

남(이동복) : 뭐가 같애?

북(백남준) : 같다고.

남(이동복) : 그러니깐 이거는, 이거는 절대로 이견 되지 않는다고…….

북(백남준) : 그럼, 그 저…….

북(조상호) : 아, 민족적인 견지에서 안된단 말입니까?

남(이동복) : 아, 이견 안돼. 이견 저.

남(최규학) : 아까 백위원장계선 공산주의적 견지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민족주의적 견지라고 그러니까?

북(백남준) : 아니, 그쪽에서 말하는건 뭐이고 그건 어떻게 좀 비뚤어 자라

나오?

남(최규하) : 자유민주주의를 선전할 수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남(이동복) : 아니, 아무튼 우리가 이 전체를.

북(백남준) : 그쪽에서 우리 있는데 와서 자유민주주의 사상 선전하면 우리가만 있겠는가 물어봐서 그거 인제 반문한거요.

남(이동복) : 백위원장, 백위원장, 내가 사회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백위원장께 사회를 좀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요렇게 해서 전체 조문을 한번 훑어야 돼요. 훑어야 그다음에 서로 인제 어느 조문을 가지고 얘기를 더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쪽 훑읍시다. 그게 지금 인제 요 1장에 대해서 전부 훑었어요. 우리 조문을 좀 훑어 볼게요, 우리 조문을. 내가 인제 설명을 드려야지.

북(백남준) : 예, 그렇게 하세요.

남(이동복) : 그래 우리가 인제 『2장, 체제(제도)인정·존중』인데 우리 3조는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 정부의 해당지역에서의 관할권을 인정·존중한다』 이것은 정말 그쪽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그 인제 북에서 말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가 유보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마는 이 연방제 통일방안도 보면은 ①민족, ①국가, ②정부, ②제도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는것 상대방의 지역에 대해서 이제 해당지역에서 정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건 어떻습니까?

요건 합의하고 넘어가지.

북(백남준) : 예, 그건 아니, 그거 이야기를 하지요. 그건, 우리는 그거 필요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런고하면, 기본합의서라고 그쪽에서 말씀하는데 그 『북남합의서 2장 11조에』, 2장 11조에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설정하면서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남(이동복) : 그 관할권하고 이 관할권하고 달라요.

북(백남준) :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역 관할권 문제는 이 명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뭐인가 하면 북남합의서의 화해분야의 제도 인정·존중문제하고, 이거는 이견이 없는거다, 예.

남(이동복) : 아, 여기에 오해가 있구만.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여기 관할권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있는데 우리 저 신국장님, 그저 신위원님, 그 관할권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할권을 지금 저 백위원장은 경계선과 관련시켜서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관할권은 그게 아닌데, 이 관할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안의 사람에 대한 또는 이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일종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권. 그거 관할권이 아니야.

북(백남준) : 예, 통치권, 그럼 그건 우린…….

남(이동복) : 우리가 법을, 법을 집행하는…….

북(백남준) : 우린 그런데, 그거이 뭐인가 하면 2장 11조에 규정된 그 뭐이

나?

남(이동복) : 그거하고는 다르지.

북(백남준) : 아니, 아니, 들어보라요. 그러면 귀측에서 2장 11조에서 우리가 쌍방이 합의한 구역이 있었죠?

남(이동복) : 아, 그거하고 다르다니까…….

북(백남준) : 아니, 아니, 들어보라요. 글썬, 아 말을 끝까지 들어 봐야지.

남(이동복) : 아, 말씀하세요.

북(백남준) : 그러면 그 귀측이 지금 현재 관할하고 있는 그 구역안에서 귀측의 통치권이 미치는데도 있고 안미치는데도 있습니까?

남(이동복) : 아니,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북(백남준) : 아니, 아니라니?

남(이동복) : 그거 지금 저 귀측에서 연방제통일방안을 얘기하면서 1국가, 1민족, 1국가, 2정부, 2제도 그러죠? 그 정부는 무슨일을 해요?

북(백남준) : 정부가?

남(이동복) : 정부가 무슨일을 해요?

북(백남준) : 아니, 정부가 무슨일을 하는거?

남(이동복) : 응, 정부는? 정부가 하는일을 여기다 쓰는거예요, 지금?

북(백남준) : 아니, 정부가 무슨일을 하는거 위원장이 모르오?

남(이동복) : 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북(백남준) : 몰라요?

남(이동복) : 거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정부가 무슨일 하는지.

북(백남준) : 모르면서 이렇게 냅나요?

남(이동복) : 아니, 나는 정부가 하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해.

북(백남준) : 응?

남(이동복) : 정부가 하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해.

북(백남준) : 어떻게?

남(이동복) : 정부는 자기 지역안에서 사람과 땅과 그밖의 모든것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북(백남준) : 아, 그런데 글썬, 기본합의서 11조에 있잖아요.

남(이동복) : 그거는 경계선에 대한 표시지, 이거하곤 다른 거예요.

북(백남준) : 아니 글썬, 그경계선 아낙에 통치권이 미치지 않은데가 있습
니까? 정부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은데가 있는가 그말이에요. 그쪽에 예
외가 있습니까?

남(이동복) : 그거하곤 다른걸 얘기하는 거지.

북(백남준) : 아니, 왜 다르다고. 똑같지 왜 다르다 그래요.

남(이동복) : 이 2장11조는 경계선에 대한.....

북(백남준) : 아니 요즘 제주도를 무슨 관광지로 꾸민다 하는데 그럼, 그거
어디 뭐, 저 어디에 무슨 조기지로 만들겠소? 어떻게 이렇게.

남(이동복) : 그러니까 아무튼 이체제와 제도를 인정·존중하려면은 그 인
정지역에 어떤 소위 정치질서를 장악해서 하고 있는 정부의 권능과 권위
를 인정을 안해주고 무슨놈의 체제와 제도가 인정되고 존중된단 말입니
까?

북(백남준) : 아, 이거 정말.

북(조상호) : 아,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문화 제도를 다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할권 문제만 자꾸 박는거야, 이거야 다른 의미 아닙니까?

남(이동복) : 아니 관할권이라는 말을…….

북(조상호) : 정부가 정치제도, 경제제도, 여러가지로 다 총괄하면 되지요? 그이상 뭐 있겠어요.

남(이동복) : 관할권이라는 말을 오해하는데, 관할권이라는 것이 무슨지역에 대한 땅 차지하는 걸로 말씀을 하는데 그런게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관할권은, 말하자면은 어떤 지역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것, 그밖에 여러가지 정책에 관한 것, 모든걸 포함하는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북(백남준) : 아니 글썬,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 통치권이 예외되는건 없다. 귀측의 그 구역안에서.

남(이동복) : 그럼 인정하는거네?

북(백남준) : 아, 글썬 그 자명한 거.

남(이동복) : 자명한거를 왜 여기다 쓰는게 뭐가 나빠서.

북(백남준) : 아, 그다음에 뭣 때문에 이걸 갖다 쓰는, 뭐인가 『제도 인정·존중』아낙에다 넣는 것도 이진 불필요한거고. 그다음에 무슨 일인가, 남측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하는게 규정이 되면 그건 남측 당국의 그 관할지역이지. 아, 제3자의 관할지역 있나요? 그 무슨 의식이 있어서 그러

는지 모르겠다 이말이야.

남(이동복) : 백위원장 말씀한 걸 그대로 쓸까?

북(백남준) : 예, 쓰라요.

남(이동복) : 관할지역이 「당국의 관할지역이다」라고?

북(백남준) : 그럼, 쓰라요.

남(이동복) : 그게, 이거 아니야?

북(백남준) : 이 합의서에 쓰겠다는 거야? 기록에 남기라요.

남(이동복) : 합의서에다가 써야지, 기록에다 왜 넣어.

북(백남준) : 아니, 그건……. 그게 무슨 저, 아니 이게 어디메 저 뭐인가 하면 아니 제도인정·존중 아낙에 들어갈 문제입니까? 이게.

남(최규학) : 근데 말입니다.

북(백남준) : 예.

남(최규학) : 이 『체제 인정·존중』 문제를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 체제가 뭐냐? 이게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행주체라든가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느냐 하는거를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남북이 상대방을 말이지,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적 실체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왜 현상을 부정하십니까?

북(조상호) : 아니.

남(신광옥) : 아니, 이걸 국가적 개념이 아니고 정부적 개념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북(조상호) : 아니지요.

북(백남준) : 이거 보시오. 그 누가 저 뭐냐.

남(신광옥) : 인적관할 문제가 있고 토지관할 문제가 있고.

북(조상호) : 그래도 뭐 관할권 문제, 뭐 토지 그쪽에, 남측에서 가하는거
요?

남(신광옥) : 아니, 명확히 규정 해야지.

북(조상호) : 우리가 뭐 땅을 빼앗겠다 합니까? 무슨 사람을 다른걸로 설명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관계 없죠?

관할권을 자꾸만 이거 강조하는 거는 통일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고.

북(김완수) : 통일하는데야 무엇 때문에 자꾸 이거 나오면, 관할권도…….

남(신광옥) : 실제적으로 주민 공민권 문제…….

남(이동복) : 자 우선, 그럼 이 3조는 일단 우리측의 설명을 드렸으니까.

북(백남준) : 예, 그 우리 입장도 밝혔고.

남(이동복) : 넘어갑시다.

4조는 뭐 아까 설명이 충분히 양쪽 거로 다 됐어요. 4조는 거의 지금
『사상』그거만 빠지면은 합의가 되거나 마찬가지야. 『사상』건은 이건 뭐
빠진거니까.

그다음 제5조 『남과 북은 각기 상대방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존중하
며 어느 일방도 국제적으로 다른 일방을 대표하거나 다른 일방을 대리하

여 행동하지 아니 한다』 이것은 뭐 너무 자명하죠.

그 남과 북이 다 각기 국제무대에서 지위를,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남의, 우리 대한민국은 160여개 국하고 국교를 맺어가지고 있고 또 북은 북대로 100여개 국과 국교를 맺어갖고 있고 또 UN에 회원국이 돼있고, 그밖에 많은 쌍무간, 다무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체제인정을 제기한다고 하는것은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야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하에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인 특수관계하에서는 그 특수관계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북쪽을 대리해서 대표할 수도 없고 북이 우리를 대리해서 대표할 수도 없잖아요?

북(백남준) : 말씀 이제 다 하셨어요?

남(이동복) : 예, 다 했어요.

북(백남준) :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요, 좀 우리가 의견을 달리합니다. 하나는 뭐이냐? 이 부속합의서는 어디 까지나 우리 북남합의서 『화해』장…….

남(이동복) : 그대론데.

북(백남준) : 『화해』장과 관련된 부속합의서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국제적 문제로 뭐 이렇게 국제적 지위를 인정·존중하고 대표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6조에 가 토론하자, 이 문제는 6조에 가서.

남(이동복) : 6조에?

북(백남준) : 예, 6조에 가 토론하면 된다.

남(이동복) : 6조? 6조어디에.

북(김완수) : 북남합의서 6조에.

북(백남준) : 기본합의서 6조에.

남(이동복) : 아, 이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북(백남준) : 아니, 그러기 때문에.

남(이동복) : 그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문제가 아니라.

북(김완수) : 아니, 이게 『제도 인정·존중』인데 이게 뭐 무슨.

남(이동복) : 남과 북의 체제의 관계 때문에.

북(백남준) : 아니, 이거 저 뭐냐? 내 두가지로 말씀드리는데 하난 뭐이냐?

『남과 북이 각기 상대방의 국제적 지위의 인정·존중한다』 이거는 뭐인가? 우리 내부합의서인 기본합의서의 부속 합의서에 얹힐 문제가 아니다.

남(이동복) : 왜 얹힐 문제가 아니예요?

북(백남준) : 다음은, 그다음 뭐인가? 『국제적으로 다른 일방을 대표하거나 다른 일방을 대리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그 문제는 우리가 이따 6조, 기본합의서 6조에 가 토론해 보자, 그거예요.

남(이동복) : 아니, 이거는 앞뒤가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일방을 대표하거나 다른 일방을 대리하여 행동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존중한다』는 거 하고 표리의 관계를 이루는 거라고.

북(백남준) : 그건 우리 저 6조에 가서 다시 토론 합니다, 그건.

남(이동복) : 이걸 6조에 가서, 6조? 6장이 아니지.

북(백남준) : 기본합의서 2장에.

북(조상호) : 『제2장 제도인정·존중』이기 때문에 이견 필요없습니다.

남(이동복) : 자, 알았어.

북(백남준) : 제도인정·존중 문제에 무슨 저 국제적인 관계의 인정·존중
까지 하겠어?

남(이동복) :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거 알았어요. 그건 넘어 갑시다.

북(백남준) : 그래서 그렇게 하자요, 뭐 저 12시 40분이 됐는데.

남(이동복) : 또 뭐 야단칠라고 그래요?(쌍방웃음)

북(백남준) : 그래서 오늘 회의를 이만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
다. 이제 12시 40분 됐는데.

남(이동복) : 그래 그건 뭐 그것도 인도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요다음 회의를 조금 빨리 합시다. 이제는
뭐 우리 조문토의를 들어갔는데 이제는 정말 닫는 말에 채찍질을 가해야
지, 우리가 임수를 수행하지.

북(백남준) : 그래서.

남(이동복) : 다음 회의 날짜를 우리가 받을게요.

북(백남준) : 우리가 뭐인가 하면, 지금 이제 8차 회담까지 날짜가 얼마 없
습니다.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20일 동안에 사실 공전을 했
단 말인데, 거의.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그런데 지금 이제 남은날짜는 70일 밖에 없구요. 그리고 우리가 8차에서 부속합의서 채택하고 화해공동위원회 내온다는 거는 쌍방의 합의고 또 오늘 이동복위원장이 또 다시 확인한거고 그러니까 날짜가 없는 조건에서 계속 이 분과위원회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안될 거 같다. 그래서.....

남(이동복) : 아니, 아니 그거는 그러면 안돼. 우리가 이 전조문을 한번 훑어서 대략 각 조문들이 말이지, 감을 좀 잡고 나서 위원접촉을 해야지 그전에 해가지고는 난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북(백남준) : 방법을 한번 좀 이야기 해볼테니까.

남(이동복) : 예, 예.

북(백남준) : 위원접촉을 당장에 시켜놓고 그리고 위원접촉을 하는 과정에 필요하며는 위원장접촉도 하자. 그 와중에 위원장접촉도 하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한달에 한번하는게 원칙으로 돼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위원장도 맡은 일이 많아요.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무슨 뭐 나는 이들에 한번도 하고 사흘에 한번도 하는건 그건 관계 없는데, 이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해 놓고서 14명이 앉아서, 14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말고 좀 폭을 좁혀가지고 위원접촉을 좀 단장이 정해가지고서 위원접촉을 자주하고 그 와중에 또 필요하면 위원장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분과위원회 날짜를 그 과정에서 정리해 가지고 분과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그 의견입니다.

남(이동복) : 그래요, 내가 절충안을 하나 낼게.

북(백남준) : 네, 네.

남(이동복) : 절충안을 내 생각에는 그 위원접촉을 맡기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전체를 한번 훑어 보긴 훑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만 더 합시다.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한번만 더하고 위원접촉에 남깁시다. 그래서 그 우리 위원회 하는 걸 요번에 특별로 7월 14일이나 16일 중에 한번 하고 그리고 그날 모여서 다른거 좌라우라 하지말고 요 조항가지고 한번 쪽 훑어 봅시다. 훑어보고 위원 접촉에 남깁시다.

북(백남준) : 근데 그 만약에 분과회의를 한번 더 하는게 어느 날이요?

남(이동복) : 7월 14일이나 15일이나 16일 사이.

북(백남준) : 그게 그.....

남(이동복) : 한번만 더 합시다.

북(백남준) : 그거 가지고는요. 거기엔 다른 회담들도 많아요.

남(이동복) : 아, 글썄, 있는데.

북(백남준) : 그다음에 무슨 애긴고 하니까, 분과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7월 말 전에는 좀 힘들어요.

남(이동복) : 아니,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한번만 좀 예외적으로 합시다. 그 뭐 다른거 하지말고 그날은 우리 모여서 이거 한번 쪽 훑어 보는걸로 합시다.

북(백남준) : 그러니까 쪽 훑어 보는거 반대 없다고.

남(이동복) : 글썸.

북(백남준) : 반대 없다고.

남(이동복) : 그래야 그 위원들이 감을 잡아가지고 하지, 그렇지 않아가지고는 절대 위원들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북(백남준) : 내 생각에는 지금 날짜가 그렇게 긴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6차까지 했는데 어쨌든 마주 앉아서 이렇게 찌어는 못 봤지만 그대로 그간에 호상 자기의 주견과 입장 표명도 다 했고, 또 상대측에 대한 상대측의 견해도 이미 그게 논의가 되고 이렇게 됐어, 이만 하면 위원 접촉에 넘길 수 있는 기초가 마련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이동복) : 아니, 난…….

북(백남준) : 난, 원칙선에서 벌써 1차부터 지금 6차까지 했는데 호상 자기의 입장들이 다 이야기 됐거든요.

남(이동복) : 그러지 않아요. 이 조항별로 우리가 한번…….

북(백남준) : 그다음 상대측에 대한 견해도 논의 됐고 그런 조건하에서 이만하면 기초가 튼튼하다.

남(이동복) : 한번만 더 합시다. 우리 위원님, 한번만 더.

북(백남준) : 한번 글썸, 이제 분과회의 하자면 7월말 전에는 시간이 없다가.

남(이동복) : 왜? 그 저기 7월…….

북(백남준) : 그 위원접촉을 말합니다. 한 일주일, 위원접촉을, 한 일주일 내지 한 10일여간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하는걸로 해가지로 그간에 또 뭐인가 필요하면 위원장접촉도 또 하고 이렇게 하는게 어떤가?

남(이동복) : 그러면은.

북(백남준) : 좀 한번 양보를 하세요.

남(이동복) : 그러면은 가만있어봐요, 내가…….

북(백남준) : 양보도 아니지,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길이지, 뭐.

남(이동복) : 가만 있어, 한번만 더 합시다.

북(백남준) : 근데 내 분과위원회 7월말 전은 좀 이위원장이 좀 몸빼기가 힘들뿐아니라 그간에 다른 회담들 쪽 보면 그렇게 못 합니다.

남(이동복) : 아니 7월 14일, 15일, 16일 사이에 어떻게 한번 할 수 있어요. 그 한번만 합시다, 한번만 하고.

북(백남준) : 분과회의는 7월말 전에는 좀 힘들다니까. 보시요, 왜 7월말 전인가? 7월 22일날이…….

북(최성익) : 16일에 군사…….

북(백남준) : 16일에 군사가 있죠?

남(이동복) : 만약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위원접촉에 들어 가기전에 아무튼 우리 두 위원장이 참가한 형태의 축소형도 좋아요. 축소형도 그리고 위원장 접촉을 해도 좋으니까 그걸 한번만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서 위원들한테 넘깁시다. 그렇지 않아가지고는 괜히 이거는 완전히 남대문 임답이 된다고.

북(백남준) : 근데 저기.

북(최성익) : 한번에 다 훑을 수 있겠습니까?

남(이동복) : 아니, 그러니까 훑어야 해.

북(최성익) : 의견차이가 많은데 한번에 다 훑을 수 없습니다. 그거.

남(김달술) : 훑을 수 없다 하면 그 훑을 수 없는거를 위원접촉에서 넘겨
놓으면 더 힘들지.

북(최성익) : 아, 그게 위원접촉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

북(백남준) : 위원장이 보고로 받아서 될게 아니예요. 위원장 보고를 받아
서 움직일게 아니겠어?

남(이동복) : 실질적으로 의견의 차이를 좁혀서.....

남(강근택) : 아니, 저 위원접촉이 그 지금 축소.....

북(백남준) : 축소회의도 필요하면 하고.....

남(이동복) : 아니 그러니까 7월 14, 15, 16일 사이에 한번 더 회의를 하자
고, 그리고 넘어가자고.

남(신광옥) : 우리보고 넘어가자, 넘어가자 하신다면은 이걸 좀 짚고 넘어
가도록 하시죠.

남(이동복) : 한번만 더 회의를 하자고, 그래서 대략 전체적으로 훑어 놓고
그리고 나서 서로 의도하는 것을 적어도 위원장 차원에서 한번 서로 궁
금한 점도 있으니까 그걸.....

북(백남준) : 아니, 그러니까 저 분과위원회는.....

남(이동복) : 너무 무책임해요, 우리가 너무 무책임 하다고. 지금, 지금 말
이야.

북(백남준) : 그만큼하면 이 위원장은 그쪽에서 할 일은 다 한것 같은데요?

남(이동복) :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북(백남준) : 아이고, 그래서 위원접촉하자고.

남(이동복) : 아, 글썄 그러니까 그거 내가 반대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7
월 14일, 15일, 16일 사이에 우리 위원회가 한번 하든지 아니면은 한번
썸은 말이야, 저기 우리 백위원장하고 내가 참가해서 위원접촉을 갖더라
도 그건 그 위원접촉에 우리 둘이 나와 앉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가
지고 위원들한테 임무를 맡기는 쪽으로 그렇게 합시다.

북(백남준) : 뭐 나는 항상 이동복 위원장한테 지기만 했으니까.

남(이동복) : 에이 여보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북(백남준) : 그러면…….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우리 분과위원회에선 이달 말 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분과
위원장은, 그럼 위원장 접촉을 하자요.

남(이동복) : 그렇지.

북(백남준) : 위원장 접촉을…….

남(이동복) : 그래.

북(백남준) : 위원장 접촉은 한 일주일 간격을 두고서…….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7월 10일날이 뭐야?

남(이동복) : 7월 10일?

북(백남준) : 7월 10일날 하자요.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그게 무슨 요일이예요?

남(이동복) : 금요일인데.

북(백남준) : 금요일, 그날하자요.

남(이동복) : 금요일?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금요일.

북(백남준) : 그리고 위원장 접촉은 그저 우리 두어명 정도.

남(이동복) : 그럼시다.

북(백남준) : 위원들 대동하고…….

남(이동복) : 아니, 내 생각에는 나중 위원접촉을 할때에는 양쪽에서 세분 정도 나오는게 좋을 것 같아요.

북(백남준) :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이동복) : 아니, 두분 해 가지고는 내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니까 조금 능률면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분정도 하는게 어떨까요?

북(백남준) : 아니 서이, 뭐 위원장에 따라서 위원 둘하면 서이지.

남(이동복) : 아,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북(백남준) : 너이 할거면 차라리 전원회의를 하고 말지 뭐.

남(이동복) : 아니, 위원접촉도 셋이 한다니까?

북(백남준) : 아, 아, 그거, 좋네요.

남(이동복) : 위원접촉은 셋이하고.

북(백남준) : 위원 접촉은요.

남(이동복) : 셋이 하는거야.

북(백남준) : 위원은 셋이 합시다.

남(이동복) : 그래.

북(백남준) : 세명이 하자요.

남(이동복) : 그래.

북(백남준) : 예, 세명하고.

남(이동복) : 그리고 그날 7월 10일날은 우리 뭐 한 두어분 모시고 나와서.

북(백남준) : 예, 각기 저 위원들 두어 사람 데리고 나와서.

남(이동복) : 그래, 그렇게 합시다.

북(백남준) : 그 10일날 하고요.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뭐 이위원장이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의혹들을 가지던 저 상호사찰 문제, 이게 뭐 합의서 내용의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8차 회담까지 부속합의서 토의 전망이 불충분하다는 건, 그건 오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회의는 아주 잘된 회의라고 생각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3. 제도 인정·존중』장과 관련된 그런 문제, 또 그쪽에 이번엔 또 9조, 우리한테

접근시켜 나와서, 그리고 오늘 또 내용도 한개장, 호상의 입장 표현도 했고, 진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회담분위기를 좀 이렇게 흐리게 하는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남(이동복) : 그 좀 인제 꼬집지 마시고.

북(백남준) : 이렇게 해 줄 것을 다시한번 내 이위원장한테 좀 강조를 하고…….

남(이동복) : 같이 노력합니다.

북(백남준) : 그리고 그다음에 이위원장이 저 뭔가하면 상호 사찰 문제가 우리는 그 받자는 겁니다,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데, 이게 뭐인가 하면은 북남합의서 이행의 전제 조건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부속합의서 8차까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물론 오보고 이렇게 입장을 명백히 해 주신 이런 조건에서는 이위원장이 남측 대변인이니까 대변인으로서 그걸 좀 공식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남(이동복) : 예, 그건.

북(백남준) :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민들이 상당한 정도로 지금 분개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

남(이동복) : 아, 그건 이미 다 우리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된 사실이고…….

북(백남준) : 우리는 못들었어. 아, 그것 들었다면 오늘 저 수정했다는 것만은 내 오늘 와서, 그 이위원장 보고 해보지 않겠는데요.

남(이동복) : 무슨 수정?

북(백남준) : 그 무슨 수정 했다며?

남(이동복) : 어느 수정?

북(백남준) : 무슨 뭐 언론이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남(이동복) : 아, 그거는 이제 우리 언론이 문안에 없을걸 보도하고 그거 이제 문안에 없는 것이다. 내가 발표한 것이다. 그러니깐 그 순간부터 보도가 다 없어져 버렸지.

북(백남준) : 그러길래 오늘 명백히…….

남(이동복) : 또 더군다나…….

북(백남준) : 남측 대변인이 명백히 지금 아주 구구하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이런 저 해명이 있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남(이동복) : 우리가 알았어요. 그건 뭐 맡겨놓으세요. 그리고 저기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방법으로 할테니까 그건 뭐 맡겨놓고, 그다음에 장소는 요다음에 『평화의 집』입니다.

북(백남준) : 『평화의 집』, 위원장 접촉 거기서 하세요?

남(이동복) : 그렇지, 7월 10일 10시.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평화의 집』에서 그날 우리 꼬리곰탕 좀 준비해 놓을게요.

북(백남준) : 뭘?

남(이동복) : 점심하고 좀 천천히 하는걸로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꼬리곰탕 좀 준비해 놓을게.

북(백남준) : 어이구.

남(이동복) : 식사를 준비할게요, 우리가.

북(백남준) : 그렇게까지 뭐 염려를 해줘서.

남(이동복) : 아, 식사를 좀 준비할게요.

북(백남준) : 아니, 무슨…….

남(이동복) : 아니 좀 그 저.

북(백남준) : 공연한 뭐지, 식사메달을 붙일게 있소?

남(이동복) : 아니, 아니예요. 오늘 꼭 잡아야지, 이거 꼭 잡아야지, 이거 또 놓치면은 또 안돼, 그날 점심준비 할 테니까.

북(백남준) : 세발자국이면 왔다갔다 하는데…….

남(이동복) : 점심식사 하는 걸로 준비하고 오세요.

북(최성익) : 식사하고 또 나와서 하지, 뭐.

북(백남준) : 감사합니다.

남(이동복) : 자, 수고했어요.